

이화동창

2016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 130년 이화정신의 산실 이화역사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02

10

20

36

이화동창

2016년 봄 제142호



표지화

오용길(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이화 교정

(한지에 수묵담채, 127x150cm, 2011)

- | | |
|--|--|
| <p>02 2016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p> <p>06 2016년도 정기총회 인사말</p> <p>07 2016년도 신입동창 환영사·답사</p> <p>10 이화의 이곳저곳</p> <p>14 모교사용설명서</p> <p>17 축하합니다</p> <p>20 나의 스승 나의 제자</p> <p>24 총동창회 소식</p> <p>27 선교부 소식</p> <p>28 만나고 싶었습니다</p> <p>32 특집</p> <p>36 자랑스런 이화인</p> <p>40 선교지에서 온 편지</p> <p>42 모교 소식</p> <p>47 박물관 소식·자연사박물관 소식</p> <p>49 대학(원) 소식</p> <p>52 과(학부) 소식</p> <p>56 지회 소식</p> <p>64 동창 근황</p> <p>71 동창이 펴낸 새 책</p> | <p>모교 창립 130주년 맞아 총동창회의 다양한 사업 보고</p> <p>김영주 총동창회장</p> <p>임진 음대 동창회장, 서수민 신입 동창</p> <p>130년 이화정신과 역사의 산실, 이화역사관</p> <p>모교에서 이화 기념품을 사려면</p> <p>이배용 전 총장 외 17인</p> <p>윤혜정 명예교수와 제자들</p> <p>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외</p> <p>2016년 상반기 수련회와 이화동창선교사 기도수첩 발간 등</p> <p>노인문제 상담가 고광애 동창</p> <p>3대 이화가족-심계섭, 고승혜 동창과 권유진 재학생</p> <p>2015년 ‘올해의 스승상’ 수상한 홀트학교 박에스더 동창</p> <p>“은혜의 단비가 이 땅에 내리소서”</p> <p>130주년 맞은 이화, 2016년 이화가족 신년인사 개최 외</p> <p>‘박물관 소장품전’과 ‘공학, 자연을 만나다’</p> |
| <p>『추억 속의 하이델베르크』 외 14권</p> | |

편집위원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정준순(약학 72, 부회장)

김광옥(식영 75, 부회장)

송은미(유교 85, 총무)

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김미령(신방 69)

윤혜숙(신방 86)

전세영(사학 94)

김민희(국문 99)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 2016년 봄 142호

발행 2016년 4월 10일 발행 | 발행인 김영주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 편집 문화정원 | 인쇄 제이오엘앤피 | 값 1,000원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6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2016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모교 창립 130주년 맞아 총동창회의 다양한 사업 보고

– 정기총회에서 예산안, 회칙 개정안 및 사업계획 발표

3월 12일(토) 오후 2시 30분 총동창회는 동창회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모교 장명수 이사장, 최경희 총장, 총동창회 윤순희(교육 65), 김순영(약학 62), 조종남(의학 75) 고문 등 약 250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초의 여성 고등교육기관이자 최고를 지향하는 자랑스러운 이화의 총동창회장으로서 모교 창립 130주년을 맞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올해 계획 중인 다양한 사업을 보고하였다. 우선 130주년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빛나는 이화인’ 상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21만 이화동창 중 현재 대한민국의 중추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동창들은 헤아릴 수 없다”면서 “과학, 경제, 의료, 법률,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언론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이화인을 찾아 격려하기 위해 상을 만들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격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동창 간의 소통을 더욱 활발



2015년도 모교의 성과를 동창들에게 설명하는 최경희 총장(왼쪽)과
김영주 총동창회장(오른쪽)

히 할 것이라 하였으며, 동창의 날을 앞두고 ‘리마인드 채플’을 마련, 기독학교로서의 이화만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동창들과 나눌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는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 정신을 기본에 두고, 창의적인 발상과 혁신의 몸짓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말하여 참석한 동창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송은미(유교 85)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한미경(물리 88) 서기의 전 회의록 낭독에 이어, 남상택(물리 74) 감사의 2015회계연도 감사보고

가 이어졌으며, 박영숙(경영 74) 회계의 2015회계연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각 순서마다 참석 동창들의 동의와 재청, 큰 박수 속에 인준이 이루어졌다.

한편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이화·한경ACE아카데미 졸업자가 총동창회 특별회원으로 입회하는 것을 계기로 총동창회 회칙 몇 가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총동창회 회원에 대한 정의, 권리와 의무,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직무 등 각 항목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참석한 동창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칙 개정안 역시 동의와 재청, 박수로 인준이 이루어졌다.

이어 최경희 총장이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의 발걸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2015년도 이화의 성과를 동창들에게 들려주었다. K-MOOC 선정, 학부교육 선도대학 선정,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상위 A등급 획득, 학군단(ROTC) 유치, 호크마 교양대

오진경 모교 대외협력처장, 조종남 고문, 윤순희 고문, 김순영 고문(왼쪽부터)

장명수 이사장, 최경희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김광옥 총동창회 부회장, 임진 음대 회장, 남상택 고문(왼쪽부터)



학 설립, 신산업융합대학 설립, 친환경 미래형 신축 기숙사 건립, 첨단 글로벌 의과대학 준공 소식 등 동창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화의 현재 모습을 하나씩 들려줄 때마다 동창들은 박수로 환답하였다. 최경희 총장은 세계 주요 석학·지도자의 방문, 세계 대학 순위 랭킹에서 거둔 성과 등을 나열하며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화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동창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 대학원 재학생 24명에게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

한편 3월 12일(토) 오후 2시 동창회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는 정기총회에 앞서 신입 동창 환영회가 열렸다. 졸업생 약 3,500명이 2016년도 신입 동창으로 입회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허현미(체육 89) 회우부장의 사회로 시작한 환영식에서 2015년 8월과 2016년 2월에 졸업한 신입 동창들을 선배 동창들은 열렬한 박수로 환영했다.

찬송가 278장을 시작으로 김광옥(식영 75) 부회장의 기도가 이어졌다. 김 부회장은 “채플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찬송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이화의 DNA를 공유하여 최선을 다해 살 아가게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회에 발을 내딛는 신입 동창

총동창회의 2016년도 사업계획안이 발표될 때마다 큰 관심을 보여준 동창들





송다은 외 23명의 모교 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김영주 총동창회장(왼쪽)과 총동창회 장학금 수혜자들(오른쪽)

들 모두를 축복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임진(작곡 72) 음대 동창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임 동창은 “이화의 교정에서 4년 동안 갈고 닦은 진선미의 진한 향기를 온누리에 펼치며, 선배들이 그러했듯 힘찬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하며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란다”고 신입 동창들을 격려하였다.

이어진 답사에서 서수민(공간디자인 16) 신입 동창은 “지난 4년을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늘 행복했다”고 말하며 “아버지께서 이화 총동창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셨다”고 말해 동창들의 웃음과 박수를 한몸에 받았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신입 동창 대표 서수민 동창에게 기념품을 전달하였고, 이어 송다은(대학원 약학과) 외 대학원 재학생 23명에게 총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성희(성악 01) 동창의 축가 <강 건너 봄이 오듯> <봄의 소리 왈츠>를 들으며 선후배 간의 우정과 사랑, 격려를 나누는 환영회를 마쳤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김영주 총동창회장이 신입동창 대표 서수민 동창에게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축가를 부른 박성희 동창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늘 새롭게 혁신하는 동창회가 될 것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총동창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장명수 이사장님, 최경희 총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동창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도와주시는 고문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승님, 선배, 후배 동창님, 감사합니다. 또 모교를 졸업하고 처음 참석한 신입 동창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화는 한국 최초의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내에서 수많은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교육기관이자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교입니다. 올해는 모교 창립 130주년이 되는 해로써 이화의 졸업생이자, 총동창회장으로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총동창회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새로 제정하는 ‘빛나는 이화인’ 상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빛나는 이화인’ 상은 올해 창립 130주년을 맞아 신설된 상입니다.

이화의 정신에 입각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뛰어난 업적으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이화여자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창을 선정, 창립기념 행사인 ‘동창의 날’에 여러 동창들 앞에서 치하하고 시상하려고 합니다. 21만 이화동창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중추로서 각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학, 경제, 의료, 법률,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이화 동창들의 활약상을 눈부십니다. 너무나 많은 후보자들이 나올까 봐 걱정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총동창회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총동

창회 홈페이지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1년에 4번 발간되는 《이화동창》 책자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총동창회에서는 모교 창립 130주년 행사의 하나로 총장님께서 내준 아이디어인 동창들을 위한 ‘리마인드 채플(Remind Chapel)’을 5월 30일(월) 오후 2시에 대강당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동창들은 학창 시절을 반추할 때 다른 대학에서는 찾기 힘든 ‘대강당 채플’을 많이 떠올립니다. ‘리마인드 채플’은 생애에서 가장 소중하고 빛나던 시절의 기억을 다시 한 번 가져보는 기회를 드리고자 준비한 행사입니다. 많이 참석하여 나의 믿음과 나의 청춘을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동창회에 힘을 실어주시고,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후원이사가 되어 밀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 창조적인 통섭의 지혜, 늘 새롭게 혁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창립 130주년을 맞는 모교의 역사 속에서 총동창회의 모습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정신을 기본에 두고, 창의적인 발상과 혁신의 몸짓으로 새로운 모교의 역사를 열어가는 총동창회가 되려고 합니다. 다음 세기를 맞는 이화 안에서 총동창회가 보다 더 비상하는 모습을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신입동창 환영사

온누리에 진선미의 향기를

임진(작곡 72·음악대학 동창회장)



여성 교육의 산실인 이화 교정의 문을 나서는 여러분!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1886년 메리 F. 스크랜튼 선

생에 의해 설립된 우리 이화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헌신하며, 130년 동안 여성 교육의 역사를 기록하여 왔습니다. 130년의 세월에는 이화를 사랑하는 여러 선배님들의 고통과 열정, 그리고 봉사와 희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밑거름으로, 2015년 최경희 총장님은 ‘이화 비전’을 선포하고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이화를 선도하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천명하였습니다. 21만 동창들은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런 이화의 발전에 함께할 수 있다는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화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한마음으로 함께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화의 교정에서 4년 동안 갈고 닦은 진선미의 진한 향기를 온누리에 펼치며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의 21만 동창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2016년도 신입동창 답사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되겠습니다

서수민(공간디자인 16)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화여대에 들어오기 위해 공부하며 그림을 그렸던 날들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합격통지서는 저에게 큰 꿈을 실

어주었고 꿈을 현실화 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화여대에서의 학창 시절은 수많은 추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졸업 전시를 준비하느라 학교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도 해보고, 동아리 활동도 하며 지난 4년을 쉴 틈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매일 이화 교정을 밟으며 이화의 울타리 안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많은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험난한 사회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가르치고 성장시켜 주신 교수님들과 믿고 지원해주신 부모님, 응원해주시는 동창 선배님들 덕분에 한층 더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님들처럼 저희 또한 이화를 빛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되겠습니다.

이화의 모든 선배님들, 선배님이 계셔서 저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저희를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화 총동창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다.” 제가 어느덧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안

(2016. 3. 1 – 2017. 2. 28)



1.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3월 12일)
2. 총동창회 기금마련을 위한 소바자(3월 10일~3월 12일)
3. 각 과(학부),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4월 21일)
4.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5월 16일~17일, 26p 참조)
5. 해외 지회 동장을 위한 간담회(5월 28일)
6. 이화창립 130주년 기념 리마인드 채플(35p 참조) 및 감사찬양제(5월 30일)
7. 동창의 날 행사(5월 31일)
 - 총장 초청 오찬
 - 기념식-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9p 참조)
 - 졸업 50주년(1966년 졸업),
 - 졸업 30주년(1986년 졸업) 동창 재상봉 행사
 - 올해의 이화인 추대
 - 합창제
 - 올해의 이화인을 위한 다과회
8. 총동창회 기금마련을 위한 대바자(9월 6일)
9. 제5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9월 24일)
10. 후원이사 간담회(10월)
11. 제15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11월 3일~11월 6일, 미국 휴스턴)
12. 제12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11월 28일)
13. 이화인의 밤 개최(11월 28일)
14. 이화가족 성탄예배(12월 1일)
15. 동창회보 142호~145호 발간(3, 6, 9, 12월)
16. 국내 지회 활성화를 위한 지회 순방(전반기, 후반기)
17. 평생회비, 연회비 납부회원 배가 운동(연중)
18. 후원이사 증원(연중)
19. 모교발전기금 모금(연중)
20. 지원 사업(연중)
 - 1) 무료 법률상담
 - 2) 나눔가게 등
21.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연중)
22. 황화방 운영(연중)
23. 기타

제1회 ‘빛나는 이화인’ 상 후보를 추천해주십시오

한국 최초의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 탄생한 이화여자대학교는 올해 창립 13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총동창회는 ‘빛나는 이화인’상을 제정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이화정신에 입각한 선도적 행동으로 타의 모범을 보이고 탁월한 역량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동창들을 선정하여, 그 공을 치하함과 동시에 그 공적을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새 시대에 걸맞는 이화인의 지표를 제시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빛나는 이화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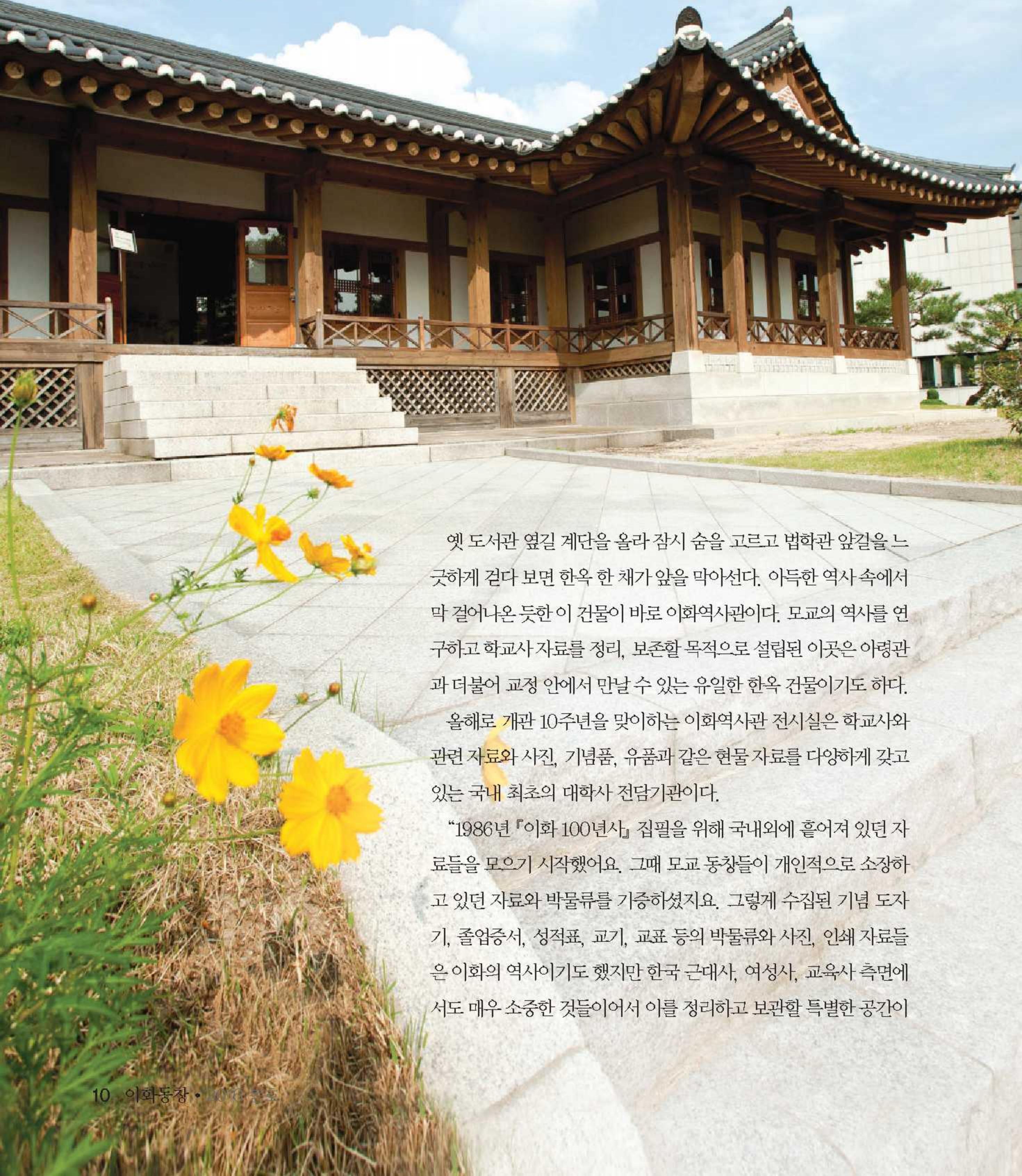
창립 130주년을 맞는 5월 31일 ‘동창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제1회 ‘빛나는 이화인’상 후보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시상 내용 상패와 증서
- 수상 후보 자격 과학, 경제, 의료, 법률,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이화의 정신에 입각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뛰어난 업적으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이화여자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본회의 회원
- 추천인 자격 각 대학 및 대학원 동창회장
국내 및 해외 지회장
전문직 동창클럽 회장
동창 100인 이상(연명 날인)
- 구비 서류 주천 사유 및 후보자 업적 사항 진술서 1통(본회 소정 양식)
후보자 이력서 1통(명함판 사진 1장 포함)
후보자 업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기타 필요 서류
- 접수 기간 2016년 4월 18일(월)~22일(금)
※ 우편 접수는 4월 22일(금)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함
-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우 03760)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주요 증빙자료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실(02-3277-338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130년 이화정신과 역사의 산실, 이화역사관



옛 도서관 옆길 계단을 올라 잠시 숨을 고르고 법학관 앞길을 느긋하게 걷다 보면 한옥 한 채가 앞을 막아선다. 아득한 역사 속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이 건물이 바로 이화역사관이다. 모교의 역사를 연구하고 학교사 자료를 정리, 보존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곳은 아령관과 더불어 교정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한옥 건물이기도 하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이화역사관 전시실은 학교사와 관련 자료와 사진, 기념품, 유품과 같은 현물 자료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국내 최초의 대학사 전담기관이다.

“1986년 『이화 100년사』 집필을 위해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교 동창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자료와 박물류를 기증하셨지요. 그렇게 수집된 기념 도자기, 졸업증서, 성적표, 교기, 교표 등의 박물류와 사진, 인쇄 자료들은 이화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한국 근대사, 여성사, 교육사 측면에서도 매우 소중한 것들이어서 이를 정리하고 보관할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지요. 이화역사자료실이 꾸려지면서 중앙도서관, 한국여성연구원, 총장 비서실, 교내 각 기관 및 창고에 따로 보관하던 자료들도 『이화 100년 사』를 집필하면서 수집한 자료들과 함께 모으게 된 것이죠.”

이화역사관 지하 1층 행정실에서 만난 손현지(사학 01) 연구원의 말이다.

김활란, 김옥길 전 총장들의 개인 소장자료와, 창립에서부터 신촌 캠퍼스 시대, 부산 피난 시절 동안 여기저기 분산, 보관된 자료를 정리, 보존하기 위해 1989년 10월 신설된 이화역사자료실이 이화역사관의 시작이다. 이때부터 수집된 자료들은 이화역사자료실 수장고에 보관되었다가 100주년 기념박물관의 전시실을 빌려 전시한 후 이곳으로 옮겨졌다.

현재 전시된 것은 별도 제작된 복제품들로 이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사방이 밀폐 공간인 여느 박물관과는 달리 이화역사관은 사방이 트여 있는 한옥인데다 혹한기를 빼고 전시 기간 내내 유리문까지 열어두기 때문에 보안면에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화학당 한옥 교사를 복원한 이화역사관

설립 120주년이 되던 2006년, 이화역사관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지금의 위치에 정동의 이화학당 한옥 교사를 복원한 것이다.

1886년 11월에 스크랜튼 선생이 지은 이화학당은 학당장실, 교무실, 선교사 숙소와 학생 3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과 기숙사 등 7개의 방을 갖춘 한옥 교사로, 건물 한가운데 마당이 있는 □자형의 큰 기와집이었다. 한옥을 단순히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옥을 헐고 새롭게 건축한데다 창호지 대신 유리창을 사용하는 등 개화기에 서양인이 지은 최초의 서구형 한옥 건물이라는 면에서 건축사적 의미도

깊다. 건립 때의 이화학당보다는 다소 축소되긴 했지만 그 정취만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당시 신인령 총장이 2005년 9월 30일 상량식 축하 연설에서 “근대 여성교육이 시작됐던 이화학당이 이화의 역사에서 갖는 중요성이 큰 만큼 전통적 경식을 차려 상량식을 하게 됐다”고 밝힐 만큼 모교로서는 뜻 깊은 공사였다. 대들보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 복원공사를 총 지휘한 최기영 대목장(중요 무형문화재 74호) 역시 건물 자체가 전시의 한 부분이라는 취지 아래 한지, 나무 등 전통적인 마감재를 사용하였고 여백의 마를 최대한 살리려고 애썼다.

이듬해 5월 26일 일반인에게 공개한 이곳은 연면적 297평 규모의 한옥 건물로 1층은 역사전시실, 지하 1층은 항온항습기능을 갖춘 수장고와 행정실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 최초로 전시실을 갖춘 학교사 전담 기관으로 재정비한 이곳에는 관장, 자료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 전시와 출판 담당 업무를 하는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근대 학교사, 교육사, 여성사, 기독교사의 사료 보고

이화역사관은 130년 모교의 역사와 전통, 이화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역사 체험 공간이자 출판, 전시, 연구, 자료 수장 등을 병행하는 기록 보존 기관이기도 하다. 소장 자료를 보존,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근현대사, 근대여성사, 근대교육사, 한국기독교사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기도 하고, 학교와 학생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도 폭넓은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곳의 출간 작업은 1991년 이화역사자료 제1집인 『이화의 노래』 음반을 시작으로, 1993년에는 역사자료 제2집인 『이화동창문인자료집』을, 마침내 1994년에는 『이화 100년사』와 『이화 100년사자료집』을

펴냈고, 2004년 영문 모교사인 『Ewha Old and New: 110 Years of History 1886~1996』으로 이어졌다. 그 후로도 ‘이화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를 기획하여 2008년 『한국 근대 여성 교육의 등불을 밝히다 – 스크랜튼』, 2011년 『한국 근대 여성 교육의 기틀을 다지다 – 아펜젤러』, 2013년 『한국 여성 고등교육의 개척자 – 프라이』를 출간하기도 했다. 최근 2013년에는 한국판 『이화 역사 이야기』, 영문판 『The Story of Ewha: from History to Future』를 펴내는 등 이화역사관의 출판은 계속될 것이다.



이화역사관에서 펴낸 『이화 역사 이야기』(왼쪽)와 1886년 당시 정동의 이화학당 한옥 교사

관람과 체험이 가능한 전시 공간

2층의 전시 공간은 상설 전시실, 기획 전시실, 영상 교육실, 편지방, 기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실로서의 가능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두 달 동안의 리뉴얼 작업을 끝마쳤다.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악천후에도 자연광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조명기기 증설로 전시실 내부가 한결 밝아졌으며, 패널의 글자와 사진 크기를 늘리고, 시대별로 패널 색상을 다르게 해 전시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게 했다.

상설 전시실은 1886년 이화학당 초기부터 현재 까지의 130년 역사가 담긴 생생한 사진 자료들을 통해 연대기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이화학당 시기, 이화학당 대학과 시기, 이화여자전문학교 시기, 이화여자대학교 시기로 나뉘어져 있어 3세기에 걸친 근대 여성교육사를 시대 순으로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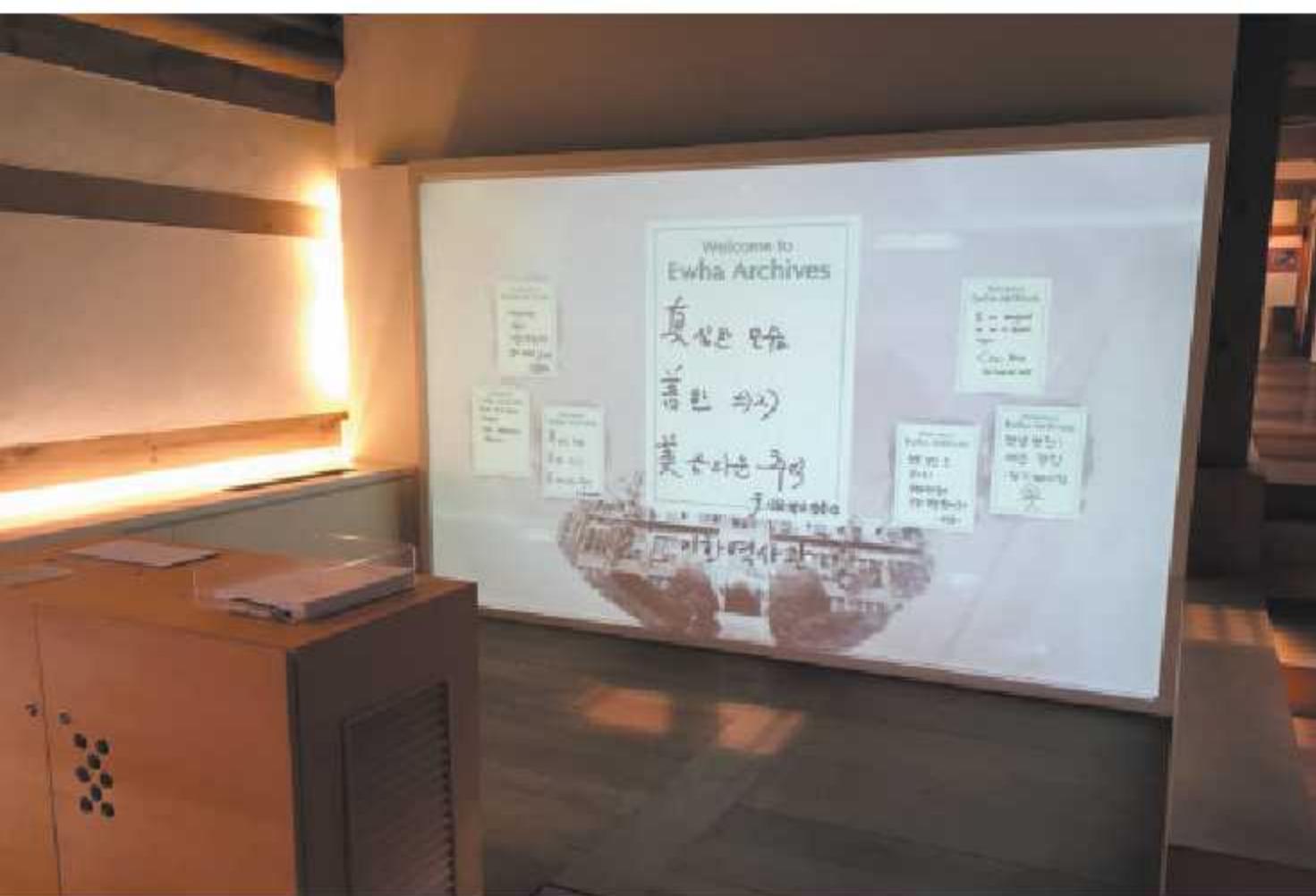
기획 전시실은 상설 전시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매년 창립 기념일에 맞춰 새로운 테마의 전시를 해오고 있다.

1990년 개관 전시에 이어, 1993년에는 모교가 길



러낸 문인들의 작품집을 모은 특별전을, 1995년에는 ‘신촌 캠퍼스 이전 60주년 기념특별전’, 이듬해에는 ‘이화 110주년 기념사진전’을 열었다. 김활란 탄생 100주년인 1999년에는 ‘근대 여성 교육과 우월 김활란’이라는 특별전과 함께 도록을 발간했고, 밀레니엄 2000년에는 사진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모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국을 이끈 이화, 세계를 이끌 이화’라는 전시를 마련했다. 그 이후로도 패션, 축제, 학보, 학생 활동 등과 관련된 전시, 스크랜튼 선생과 프라이 선생 관련 전시를 기획해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다.

지금 기획 전시실을 방문하면 ‘꿈과 도전의 대역사, 신촌 캠퍼스’ 전시를 둘러볼 수 있다. 단순한 공간 확장의 의미를 넘어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 신촌 캠퍼스로의 이전 날짜는 이화학당 대학과를 설립한 프라이 선생의 뜻을 기려 선생의 생일인 3월 9일로 정해졌다. 이런 뒷이야기와 부지 구입 자금과 신축 기금에 도움을 준 독지가 헤이워드 그레이 부인과 사회사업가 파이퍼 부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만여 통의 편지로 모금을 호소했



관람객의 글이 벽면에 투사되는 디지털 방명록은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 공간이다

던 아펜젤러 선생, 종파와 국경을 초월한 각계 각종에서 별인 놀랍고 감동적인 모금 운동, 설계와 건축 기간 동안의 모습, 이전 당일 49년간 정든 이화학당을 떠나 신촌 캠퍼스까지 약 3킬로미터의 장대한 행진 등 신촌 캠퍼스의 어제와 현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 전시는 5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실외 채광을 차단해 영상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든 영상 교육실에는 사람의 움직임을 인지하는 센서가 부착돼 있어, 관람객이 지나가면 3분 분량의 홍보 영상 <이화, 어제와 오늘>이 자동 재생되도록 했다.

디지털 방명록도 눈길을 끈다. 관람객이 방명록을 작성하면 스캐너와 빔 프로젝터를 통해 글이 벽면 전체에 투사된다. 디지털 방명록은 관람객들이 모교 역사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이기도 하다. 다른 관람객들의 방명록을 보는 재미는 보너스.

한옥의 안방을 연상시키는 편지방은 이곳을 방문한 소감이나 모교에 바라는 점 등을 남길 수 있도록 필기구들이 비치되어 있다.

관람 후 열람실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필요한 자료

를 복사 혹은 촬영 등을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박물관과는 차별화된 혜택이다.

단 한 명의 관람객에게도 친절한 해설을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 여름(7월 21일~8월 20일)과 겨울(12월 21일~1월 31일)의 휴관 기간을 피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지난해 약 6,000명의 졸업생과 관광객 등이 다녀갔으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다.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 설명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욱 깊이 있는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 설명은 15분, 30분 코스가 있는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행정실(02-3277-3196)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이를 위해 해마다 20~25명의 도슨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영어 통역이 가능한 학부생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것도 특징이다.

“이화역사관에서는 개관 때부터 모교의 역사 연구와 보존을 위해 학교 관련 자료와 유물의 기증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일에 더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바라며 기증품들이 모교의 역사 보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화역사관 관장인 함동주(사학 80) 교수는 아직도 이곳을 모르는 동창이 많다면 앞으로 더 많은 동창들이 모교의 역사와 정신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모교 탄생 130주년을 맞는 해이다. 동창이나 가족들과 함께 꽃구경도 하고, 이화역사관의 전시를 둘러보며 옛 추억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글·윤혜숙(신방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 로고에 궁지를 담았어요”

부동의 베스트셀러 빨간 수첩, 최근엔 실리콘 컵과 가방 인기

이화동창들이 일상 속에서 모교를 추억하는 물품 중 하나가 ‘빨간 수첩’이다. 빨간 수첩을 지니고 있으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속으로 동창이구나 생각하며 반가움을 느낀다. 올해 나온 수첩을 사러 총동창회 사무실을 들렀는데 수첩 말고도 모교의 로고가 찍힌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들이 눈에 들어왔다. 모교에서 뜻밖의 쇼핑을 하게 된 것이다.

가까운 지인에게 선물해야 할 때, 고마움을 전해야 할 때, 몸담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에 선물해야 할 때가 있는데 적당한 가격대의 품질 좋은 선물을 고르는 일이 쉽지 않다. 이럴 때 모교의 기념품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다양한 구성에 합리적인 가격대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화’ 로고까지 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나 선물 받는 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교에서 이화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은 총동창회와 생활협동조합이다. 총동창회가 판매하는 기념품은 이화 삼성교육문화관 803호 총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 판매는 하고 있지 않지만 4월 중 홈페이지(<http://www.ewhaalum.or.kr>)가 구축되는 대로 온라인 판매를 할 계획이며, 단체 주문일 경우

가격 협상이 가능하다(총동창회 연락처: 02-3277-3386~7).

총동창회 기념품 베스트셀러인 이화동창수첩(일명 ‘빨간 수첩’)은 1971년 처음 발행되기 시작했다. 1974년에는 짙은 청색과 밤색으로 나온 적도 있었다. 1983년 지금의 색과 사이즈로 제작된 이후 한 해 3만 5,000부가 팔리기도 했지만 스마트폰 보급 이후 수첩 소비가 많이 줄었다. 2015년에 2만 부를 발행한 2016년도 수첩은 매진되었다.

총동창회 기념품 중에서는 색동 가방이 이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최근 출시한 친환경 실리콘 컵과 가방 등이 수첩의 뒤를 이어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신상품인 카드지갑과 쟁반의 판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모교 생활협동조합에서는 3곳의 기념품점 운영

모교 생활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기념품은 세 곳의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있다. ECC와 웰컴센터 기념품점, 그 외에 파빌리온 기념품점(100주년 기념박물관 앞 신 건물)이다. 주요 고객은 재학생과 동창들이지만, 최근 들어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단과대학별, 과별, 기수별 동창모임에서 단체 주문하는 경우가 많으나, 생활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제품

의 경우 가방, 망사파우치 류, 백인백 3종 세트, 텀블러, 이화보틀, 동창수첩, 이화수첩 등과 손수건, 배꽃비누가 베스트셀링 품목이다. 야구점퍼나, 티셔츠, 후드 집업 등의 의류는 재학생에게 인기 있는 상품으로, 최근 중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동창은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이화기념품점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과별, 혹은 단과대학별 기념품 단체 주문이 필요할 경

우, 생활협동조합 사무실로 연락하면 단과별 로고, 단체명 등의 별도 문구 인쇄 등이 가능하다(생협 연락처 : 02-3277-3284, 4784). 온라인 이화기념품점(<http://ewhagift.ewha.ac.kr>)을 통해 아이템 별 제품 상세 사진과 내역을 확인하고 주문하면 된다.

글·전세영(사학 94,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동창회에서 파는 기념품



색동 가방 7,000원



가죽 카드지갑 20,000원



이화동창수첩 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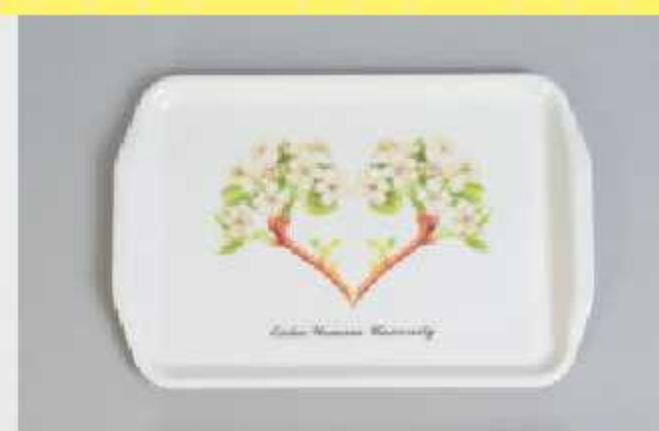
에나멜 클러치백 15,000원



실리콘 컵 7,000원



장바구니 7,000원



쟁반 7,000원

총동창회 사무실 위치 :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3호 / 운영시간 : 월~금 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전화번호 : 02-3277-3386~7

ECC 기념품점 위치 : ECC 지하4층 410호 (GATE 3)
운영시간 : 학기 중 8:30~19:30, 방학 중 9:00~19:30, 토요일 10:00~17:00
전화번호 : 02-3277-3706

웰컴센터 기념품점 위치 : 정문 지하 웰컴센터 내 / 운영시간 : 월~토 9:30~17:00 / 전화번호 : 02-3277-4783

파빌리온 기념품점 위치 : 정문 파빌리온 / 운영시간 : 월~금 9:00~19:30, 주말 10:00~17:00 / 전화번호 : 02-3277-5951

온라인 기념품점 <http://ewhagift.ewha.ac.kr>

‘이화동창 평생회비’ 가 새로 생겼습니다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이화동창의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총동창회 일에 항상 따뜻한 관심 보여주시는 이화동창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한 번씩 동창들이 납부하는 연회비 3만 원은 총동창회 사업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장학사업과 회보 제작 및 우송료 등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동창회에서는 기존의 ‘이화동창 연회비’ 외는 별도로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주요 대학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간 평생회비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동창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평생회비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해마다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헤매는 불편을 덜 수 있고, 때마다 은행에 연회비를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평생 한번, 회비 납부를 통해 이화인의 저력과 긍지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평생회비 납부가 어려운 동창은 기존의 연회비 납부(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통해 총동창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금액: 50만 원(2016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79년 이후 졸업 동창)

30만 원(2016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78년 이전 졸업 동창)

기간: 평생에 한 번 회비를 내면 됩니다

계좌 이체 : 신한은행 100-009-592614(예금주 : 이대총동창회)

지로 :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 통해 납부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금액: 3만 원

기간: 총동창회 연회비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합니다

계좌 이체 : 신한은행 100-009-592614(예금주 : 이대종동창회)

지로 :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 통해 납부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이배용(사학 69) 전 총장
'자랑스러운 한중인상' 수상

이배용 모교 전 총장이 2월 29일(월)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1세기한중교류협회 개최 2016 신년인사회에서 '자랑스러운 한중인상'을 수상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이 전 총장은 '한중정책포럼'을 이끌며 양국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 상을 받았다.



최경희(과교 85) 총장
'2015 자랑스런한국인대상' 종합대상 수상

모교 최경희 총장이 2015년 12월 21일(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5 자랑스런한국인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발전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최 총장은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 비전 아래 세계 100대 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교육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둔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문용자(의학 62) 동창 **'박에스더 상'** 수상

남북보건의료재단 이사장 문용자 동창이 3월 5일(토) '자랑스러운 이화의인(醫人) 박에스더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김자혜(사회 74) 동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회장 선출**

2월 26일(금) 서울YWCA 강당에서 열린 제44차 정기총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자혜 동창은 현재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오혜숙(의학 78) 동창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15년 10월 15일(목) 보건복지부와 KBS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후원하는 ‘2015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황혜진(국제사무 79) 동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취임**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황혜진 동창이 1월 15일(금)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한국컨벤션학회 부회장, 국제회의센터 소장을 역임한 황동창은 1998년 모교에 국제회의 전문가 과정을 도입한 MICE(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산업 교육 전문가이다.



김옥수(간호 80) 동창 **대한간호협회 회장 연임**

김옥수 동창이 제36대 대한간호협회 회장 선거에 당선되어 회장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임기는 2018년 2월까지 2년이다.



민무숙(영문 81) 동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취임**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여성가족비서관 민무숙 동창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한무경(대학원 83) 동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선임**

효림산업 대표이사 한무경 동창이 2015년 12월 22일(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 동창은 2016년 1월부터 3년간 여성 경제인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도모를 위해 여성의 창업과 여성 경제인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혜경(국문 86) 동창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승진**

김혜경 동창이 전국은행연합회 상무로 승진하였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권 협회에서 여성 임원이 나온 것은 김 동창이 처음이다.



이명숙(법학 86) 동창 **여성신문 선정 ‘2015 올해의 인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동창이 1월 12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여성신문 신년하례식·미래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상’ 시상식에서 ‘2015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정재선(사회 88) 동창 **한국리서치 사장 임명**

정재선 동창이 한국리서치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1988년 한국리서치에 입사한 정 동창은 2004년부터 기획조사·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미디어·유통·소비자 분야 신디케이트 조사를 총괄했다.



손혜리(작곡 90) 동창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선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임 이사장에 손혜리 동창이 임명되었다. 손 동창은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과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 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윤재연(영문 90) 동창 **인제스피디움 대표이사 취임**

블루원 대표이사와 인제스피디움 감사로 재직 중이던 윤재연 동창이 인제스피디움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오는 5월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취임하며 블루원과 인제스피디움을 맡게 된다.



조주연(생미 92) 동창 **한국맥도날드 대표 선임**

한국맥도날드 부사장 조주연 동창이 한국맥도날드 대표로 선임되었다. 이번 승진으로 조 동창은 맥도날드 한국 진출 30년 만의 첫 한국인, 첫 여성, 첫 내부 출신 대표라는 타이틀의 주인공이 됐다.



김영희(정외 93) 동창 **롯데백화점 상무보 승진**

김영희 동창은 롯데아울렛 서울역점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유의 친화력과 섬세한 매장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롯데백화점 상무보로 승진하였다.



김정희(법학 93) 동창 **농림축산식품부 첫 여성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김정희 동창이 고위공무원(국장급)에 임명됐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조직으로 신설된 1948년 11월 이후 처음 탄생한 여성 고위공무원이다.



김은영(약학 96) 동창 **엘러간 아시아 4개국 지사장 선임**

한국엘러간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은영 동창이 아시아 4개국 신임 지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김 동창은 한국 지사와 함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지사를 총괄하며 아시아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88세에도 변함없는 통찰력과 유머감각



윤혜정 명예교수
(1950년 졸, 모교 약학대학 2회 졸업생)

1929년생. 모교 약학대학 학사 및 동 대학원 석사, 서울대 약학 박사. 국립중앙화학연구소('국립보건원'의 전신)에서 약 3년간 근무 후 1954년에 모교 교수로 부임. 1995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약대 학생과장, 교학과장, 약학과장, 약대 학장, 약학연구소장 역임. 대한약학회 부회장 및 이사, 독성학회 이사 및 한국식품위생학회 부회장 역임. 대한약학회 학술상(1978), 국민훈장 모란장(1995), 유한여약사봉사상(1997) 수상.

함께한 제자들(졸업연도 순)

장현숙(약학 60) 약대 동창회 선교부장, 약대 동창회장 역임

김봉희(약학 73) 충남대 약학대학 교수, 약학대학장 역임

차도련(약학 74) 대한약사회 국제 학술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 서울시약사회 지도위원

신윤용(제약 79) 모교 약학대학 교수

이선희(제약 8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부장

안소영(약학 83)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윤혜정 명예교수는 모교 약학대학(이하 약대) 발전의 산증인이다. 1954년부터 1995년까지 무려 42년간 모교에 봉직하면서 약대 내의 굵직한 직함을 두루 거쳤다. 특히 1989년에 설립된 모교 약학연구소 설립의 주역이다. 그는 대내외적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모교 약학과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윤 교수에 대해 “시대를 앞서 읽고 시야가 넓은 분”으로 거론한다.

윤혜정 명예교수와 6명의 제자들이 지난 2월 27 일(토), ‘나의 스승 나의 제자’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6명의 제자들은 윤 교수가 한 명 한 명 직접 선별했는데, 이날 모인 제자들은 최연장자인 장현숙 동창부터 최연소인 안소영 동창까지 격차가 23년에 이른다. 대담은 안소영 동창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했으며, 일정 조율은 정준순(약학 72) 총동창회 부회장이 도움을 주었다. 정부회장은 일정 내내 동석했다.

윤혜정 _____ 오늘 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고심해서 선별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을 한자리에서 보고 싶었지. 장현숙 동창은 약대 동창회 선교부를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김봉희 교수와 신윤용 교수는 교육계에

서 후배 양성에 열심인 분들이에요. 이선희 부장은 식약처에서 근무 중인데, 학창 시절에 약대 국악부 활동을 열심히 했고, 차도련 동창은 개국약사로서 서울시약사회 부회장과 전국 개국동문회 회장을 맡았었지. 안소영 박사는 내 밑에서 석·박사를 했는데 공부 욕심이 많아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 하더니 이렇게 넓은 사무실의 대표가 됐어요. 제약이나 바이오 관련 특허 문제로 대외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하나같이 자기 길을 열심히 가는 사람들 이지요.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김봉희 ____ 2월 초에 전화를 받고 반가운 마음 한 편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웠지만 뜻 깊 은 자리에 선택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차도련 ____ 선생님 과목인 위생화학(현 예방약학) 은 분류와 구조적 사고가 중요하잖아요. 이 자리 에 모인 제자들 분류 기준을 듣고 ‘아직도 촉이 살 아 있으시구나’ 느꼈어요.

윤혜정 ____ 사실 좀 망설였어요. 제자들에게 연락 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걱정도 되고, 막상 만나 서 무슨 말을 하나 고민도 됐거든. 하나같이 흔쾌히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장현숙 ____ 교수님은 약대 동창회 선교부 월례예 배에 늘 오셨지요. 1회 졸업생인 최혜정 선배님, 4 회 주정숙 선배님과 함께요. 개근상도 받으셨고요.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윤혜정 ____ 후배들이 자꾸 불러요. 놀지 못하게 하 네.(일동 웃음)

차도련 ____ 유머 감각도 똑같으세요.

윤혜정 ____ 내가 1929년생이니까 88세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활동할 만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실 례가 되지 않으려 하는데, 후배들이 불러주면 웬

만하면 가려 해요.

이선희 ____ 지난해 약대 70주년 행사에서 윤혜정 교수님 인기가 엄청났어요. 참 곱게 나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뭔가요?

윤혜정 ____ 난 마음이 젊어. 지금도 마음만은 여러 분들이랑 똑같다고 착각해요.(웃음)

김봉희 ____ 외모도 빼어나시지만 학문적인 업적도 남다르셨어요. 위생약학 분과학회장을 하실 때 전 국 약학대학 위생 담당 교수들의 친목 위주 모임을 심포지엄으로 바꾸고 학구적인 모임으로 만들었지요.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으셔서 다들 좋아 했어요. 저한테는 소개팅도 시켜주셨어요. 인연은 아니었지만.(웃음)

일하는 여성의 롤모델

안소영 ____ 저는 선생님 방 조교를 했어요. 선생님이 늘 도시락을 싸오셔서 저도 싸와서 함께 먹었죠. 그 도시락 습관이 사회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져서 시간 활용에 큰 도움이 됐어요. 조교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두고두고 기억이 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옆방에 계시고 학생들에게 실험 시범을 보이는데, 제가 쥐를 잘못 만져서 떨어뜨렸던 것 기억나세요? 실험실이 온통 아수라장이 됐는데, 선생님이 바로 들어오셔서 수습을 해주셨죠. 생각해보면 선생님의 교육철학이 묻어나요. 큰 틀에서 자유를 허용하시면서도 멀리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차도련 ____ 저에게 윤 선생님은 엄마 같은 분이자, 롤모델이세요. 대학원에서 연구원 할 때 선생님과 함께 자주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들은 말들이 인생의 큰 길잡이가 됐어요.

특히 당시에 저는 공부 욕심이 많아서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도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아이들도 있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 외중에도 박사를 이어가는 모습이 고무적이었어요.

윤혜정 나 자신도 독신주의자였어요. 내가 만약 혼자 살 자신이 있었다면 끝까지 독신으로 남았을 거야. 그런데 6·25 전쟁이 터졌으니 시국도 불안하고, 여자 혼자 이겨내기 어려웠지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하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때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은 일과 결혼의 양립을 기꺼이 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차도련 선생님의 결혼관도 제게 영향을 줬어요. “결혼하려는 사람의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아라.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그게 인생이다” 하셨죠.

신윤용 선생님은 우리 세대보다 남녀평등 사상이 더 공고하셨어요. 선생님 맥에 세배하러 가 보면 사부님 성함과 선생님 성함이 새겨진 문패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윤혜정 결혼이란 여자와 남자의 만남이기 이전에 한 인간과 인간의 숭고한 만남이잖아.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심이 있어야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신윤용 선생님은 옳은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신 분이셨어요. 교육자로서 언행일치의 본보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교육자로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참된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 배웠어요.

윤혜정 아이고,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신윤용 선생님은 학문적으로 리더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영향력이 지금도 여전하죠. 요즘도 환경리더스포럼에 가보면 선생님 안부를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약학연구소 설립한 주역

이선희 저는 선생님에 대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리더십이에요. 그릇이 크고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함을 갖춘 분이시죠. 약대의 전공과목 특성상 본부의 장(將)을 맡기가 쉽지 않는데 선생님은 초기 단계부터 리더 역할을 줄곧 해오셨어요. 그래서인지 외부 활동, 저의 경우 공직에 대해 존중해주시고 가치 부여를 해주셨지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제 국악반 활동을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걸 보고 놀랐답니다. 둘째, 후임 교수를 카운 첫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초기부터 후임을 키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교수님은 일찌감치 신윤용 교수님을 후임으로 키우셨지요. 그 모습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후배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게 하는 계기도 됐지요. 셋째, 원칙주의자셨고 소신이 있으셨어요. 어떨 땐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시기도 했지만, 문제 해결의 달인이셨답니다.

김봉희 무엇보다 약학연구소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은 연구비가 열악했던 시기에 사비를 들여 약학연구소를 설립하셨어요. 또 학과 교수들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주시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셨죠.

윤혜정 약학연구소 설립이 굉장히 절실했거든. 연구 제반 시설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실습을 못했어요. 제약회사나 개국약국에 가서 하곤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소가 꼭 필요



왼쪽부터 안소영, 차도련, 김봉희 동창, 윤혜정 명예교수, 장현숙, 이선희, 신윤용 동창

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학장을 맡은 당시였어요. 내가 먼저 1,000만 원을 연구기금으로 내놓고 기금을 모았어요. 2년간 설립 준비를 거쳐 1989년 10월 24일 약학연구소 협판식을 했지요.

신윤용 그 약학연구소가 지금까지 연구의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어요.

안소영 선생님의 연구 분야는 워낙 넓잖아요.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경험이 두고두고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변리 업무는 특히 다양한 분야를 다루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과목인 위생화학은 식품위생, 환경위생, 독성학 등을 망라해요. 공부량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약품은 물론 식품, 고분자화학, 바이오 관련 업무까지 다양하게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장현숙 당시 약대 학장님이셨던 윤혜정 교수님은 ‘약대가족기도회’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셨어요. 이 기도회는 1986년, 이화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이화 및 약대 복음화를 위해서 조직됐어요. 1992년에 약대 동창회 선교부가 되면서 한층 활성화됐고,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교사 후원금, 선교 장학금, 신입생에게 성경 및 찬

송가 배부, 은퇴 선교사 후원기금 마련을 해왔어요. 5월 3일(화)에는 ECC 이삼봉홀에서 선교부 설립 30주년 기념예배를 앞두고 있답니다.

김봉희 이렇게 선생님을 뵈니 참 좋습니다. 아직까지 고운 모습을 유지하시는 건 자기 관리를 잘 하셨다는 것이겠지요. 저희도 본받아서 선생님처럼 곱게 나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신윤용 선생님이 아직도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으셔서 뿌리 깊은 나무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약대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릴게요.

윤혜정 이대 약대는 겸손하면서도 지식과 재능을 겸비한 선배들이 다져온 전통이 있어요. 후배 여러분은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로 로봇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 현 약국 경영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약학인은 약품의 정확한 정보와 분석, 유해성의 예방과 안전성, 올바른 적용방법을 제시하고 지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죠. 이 본분을 잊지 않고 약학인으로서 무한히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진행 및 정리·김민희(국문 99,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동창회 소식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동창회 회칙 변경안 논의

총동창회는 2월 18일(목) 오후 2시 30분 이화·삼성교육문화관 회의실에서 2016년도 첫 정기임원회를 갖고 예산안과 사업계획, 홈페이지 개설 문제, 동창회 회칙 개정안, ‘빛나는 이화인’ 상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먼저 2015년 추경예산안,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한 데 이어 3월 12일(토) 동창회 대회의실 806호에서 정기총회가 있음을 공지하였다.

이날 신입동창 환영회도 진행되며, 환영사는 음악대학에서, 답사는 조형대학에서 맡기로 하였다.

이어 회칙 개정안 심의가 있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11월 정기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화·한경ACE아카데미 졸업생들을 총동창회 특별회원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창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의 인원수 및 고문에 관한 조례, 임원의 선임, 임원

회의 의결방법, 재정 등 전반적인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대 최희경(법학 90) 교수와 회칙개정위원회 간 수차례 논의를 거치고 차명희(법학 66, 전 가정법률상담소장) 동창의 자문을 통해 만든 개정안을 설명하였다. 임원들은 바뀐 시대에 걸맞는 회칙 변경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세부 검토를 하였으며, 각 항목별 변경안은 3월 12일(토) 정기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20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각 과(학부),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를 4월 21일(목)에, 해외 지회 동창을 위한 간담회를 5월 28일(토)에 갖기로 하였으며, 대바자회를 9월 6일(화)에, 제5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를 하반기로 옮겨 9월 24일(토)에 열기로 결정하였다.

‘빛나는 이화인’ 상 세부사항 논의

3월 정기임원회가 3월 10일(목) 오후 2시 30분 이화·삼성교육문화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안 보고가 있었고, 회칙 개정안 중 누락된 항목을 재정비하였다.

이어 올해 새로 신설한 ‘빛나는 이화인’ 상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가 있었다. 총동창회에서는 ‘현직에서 빛나는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 각 분야 이화동창들을 찾아 격려하기 위해 ‘빛나는 이화인’ 상을 제정하고 창립 130주년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하기로 하였다. 종교, 문화, 과학, 언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발한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화동창을 발굴하여 분야별로 다수를 시상할 예정이며, 4월 18일(월)부터 4월 22일(금)까지 각 대학(원), 지회에 공문을 보내어 후보자를 추천받기로 하였다.

한편 2000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였던 ‘동창회 회보 경연대회’ 폐지건을 상정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원들은 2000년부터 격년으로 회보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동안 우수한 회보를 만드는 몇

곳이 한정되어 수상자가 계속 중복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총동창회도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만큼 각 동창회의 회보도 종이 책자 대신 홈페이지와 연동되도록 자연스럽게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다만 경연대회는 폐지되어도 각 동창회 별로 진행 중인 동창회 회보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총동창회 기금 마련 소바자회 개최

총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소바자회가 3월 10일(목)부터 3월 1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렸다. 동창 및 재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월 10일(목)~11일(금)은 ECC 지하4층 ECC 광장(닥터로빈 앞)에, 3월 12일(토)은 이화·삼성교 육문화관 1층에 각각 부스를 마련하였다. 봄맞이 의류(요하네스)와 속옷, 신발, 양말, 액세서리, 견과류, 잡화 등 다양한 품목이 준비되어, 재학생 및 총동창회를 찾은 동창들과 총회에 참석한 동창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총동창회, 웨딩 공간 대여 및 서비스 실시 예정

총동창회에서는 이화동창들을 위한 웨딩 공간을 모교에 마련하고, 거품 없는 가격에 품격 있는 웨딩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준비 중인 공간은 이대 대학교회(의자만 세팅 가능, 약 600석 규모, 일요일 제외),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테이블 세팅 시 120석 규모, 의자만 세팅 시 200석 규모)와 103호(의자만 세팅 시 150석 규모), 이화·SK텔레콤관 2층 강당(의

자만 세팅 시 150석 규모)이며, 총동창회에서는 웨딩드레스와 웨딩플라워, 웨딩부케, 사진, 음식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오픈 예정일과 가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이화동창》과 총동창회 홈페이지(www.ewhaalum.or.kr: 4월 중 오픈 예정)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전화 문의: 02-3277-3386~7

총동창회 홈페이지 4월 중 오픈 예정

총동창회에서는 2016년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여, 동창들 간의 화합을 다지고 동창들의 모교 사랑을 모교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4월 중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는 다양한 게시판(동창회 소식, 동창 소식, 학교 소식 등), 총동창회 소개(회칙, 연혁, 임원 소개 등), 동창행사 안내(총동창회의 연중행사 소개), 동창 서비스 안내(동창회관 대여, 동창회 기념품 안내, 졸

업생을 위한 모교 지원 서비스-도서관 출입증, 무선 랜 사용 서비스, 캠퍼스 투어, 이화가족카드 등), 모교 후원(월 1만 3,000원의 정기후원 소액모금캠페인 ‘이화 웨이브’ 소개 등), 21만 동창 찾기(홈페이지를 통한 동창 본인 정보 제공), 동창회보(124~142호 까지 PDF 서비스 제공) 등의 메뉴로 구성된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ewhaalum.or.kr> 이다.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이화동창》 책자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화 창립 130주년 기념 제13회 ‘발레로 만나는 Messiah’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아 총동창회는 선교부 주관으로 이화발레앙상블의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올린다. 스크랜튼 선생이 심어준 우리 민족 여성 을 향한 그리스도 사랑은 이화의 130년 시간을 통해 자라며 세상에 우뚝 서 빛을 발하고 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열매인 세계 최초 헨델의 ‘메시아’ 발레는 12년 동안 매해 모교 대강당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뉴저지, 보스턴, LA 등에서 공연하며 이화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 나누어 왔다.

70여 명의 모교 무용과 동창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발레단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생애를 고도의 발레 테크닉을 통해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하고, 감동적으로 전달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다수의 장면들을 새롭게 구성, 안무하였으며, 무대 장치, 영상매체 등을 기술적으로 사용하여 작품의 예술적 효과를 더할 것이다.

모교 무용과 신은경 교수가 안무하여 2004년 ‘제18회 기독교 문화대상’, 2014년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발레로서 이 시대의 절망과 아픔을 희망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모교 창립 130년을 맞아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가 이화의 첫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축제의 장이 되고, 그 능력과 사랑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마음을 모으는 만남의 장이 되기 바란다.

전 수익금은 세계 이화동창 선교사들에게 전해진다.



일시 : 2016년 5월 16일(월) ~ 17일(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 문의 : 총동창회 사무실(02-3277-3386~7)

선교부 소식 2016년 상반기 수련회

1월 19일(화) 총동창회 선교부 상반기 수련회가 다락방 전도협회에서 있었다. 김은경(성악 64) 동창의 인도하에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여, 이경희(불문 82) 불문과 선교부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안선희 교목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전 개회예배를 드렸다. 오후에는 일산 든든한 교회 사모인 송자경 목사의 간증 및 말씀을 듣고, 성혜옥(영문 70) 동창의 인도하에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여 5월에 개최할 예정인 ‘리마인드 채플’과 ‘이화 창립 130주년 기념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

연을 중심으로 특별 중보기도를 했다. 한파에도 불구하고 총 32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은혜롭고 충만한 수련회를 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렸다.



상반기 수련회에 참석한 선교부 동창들

성탄선물 및 선교후원금 발송

2015년 12월 2일(수)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미주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창 선교사들에게 2015년 성탄선물을 보냈다. 매년 그렇듯이 이화 동창수첩, 이화 달력, 김, 성탄예배시 모금된 후원 현금 그리고 선교부원들의 마음을 담은 성탄카드를 보냈다. 특별히 올해 2016년에는 익명의 동창이 선교사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후원금을 기탁해서, 매달 일정액의 선교후원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성탄선물과 후원금을 받은 선교사들로부터 감사의 답장이 많이 왔는데, 간추려 소개한다.

“귀한 선물이 도착했네요. 한동안 못 먹던 구운 김도 맛나게 먹고, 이곳에선 귀한 달력도 너무 좋아요. 남편 선교사가 이대 선배님들이 좋은 일 하신다고 부러워 합니다. 섬기는 이들을 돌보기에 마음이 늘 분주하다가 저희를 돌봐주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니 정말 흐뭇하네요. 이화 선교부 모든 분들께도 올 한해 기쁨이 넘치시길 기도해요.”

– 케냐 김선정(영문 88) 선교사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정성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보내주시는 현금을 두 학생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두 명의 대학생이 공부하는 데 충분한 금액입니다. 익명의 동창을 위해서도 동창 선교부를 위해서도 손 모으겠습니다. 기억해주시고 늘 기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V국 북부지역 N(관현 06) 선교사

2016년 이화동창선교사 기도수첩 발간

총동창회 선교부는 3월 8일(화) 제16호 이화동창선교사 기도수첩을 발간했다. 이 수첩은 2001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했다.

기도수첩에는 현지사역, 안식년, 국내 본부사역,

현지사역을 마친 선교사 등 총 140여 명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 및 근황을 담았다. 이 기도수첩이 잘 배포되어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는 이화에 선교의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노인문제 상담가 고광애 동창

아름다운 노후, 늙음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죠!

꽃샘추위가 한풀 꺾인 3월 어느 날, 한 백화점에서 만난 고광애 동창은 여든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곱고 아름다웠다. 얼마 전 모 방송국의 〈TV회고록〉에 출연한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방송에 나갈 만큼 유명하지도,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에 여러 차례 거절했다는 고동창. 그러나 곧 공부와 상담 활동에서 얻은 자신의 경험이 노후를 맞이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방송 이후 그녀가 쓴 책들이 재쇄를 찍기도 하고,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들과 소식이 닿기도 했다.

고동창이 노년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신살에 접어들면서였다. 당시 그녀는 스물셋에 결혼해 세 자녀를 비뚤어지지 않게 키우는 게 전부였던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큰아들은 결혼 후 유학 가고, 둘째 아들은 군대 가고, 딸도 유학 간 후였다. 어느 날 보니 곁에는 남편과 친정어머니뿐이었고 북적북적하던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낼지 더럭 겁이 났다. 반쯤은 얼이 빠져 살았다.

“저 사람 밥은 내가 해줄 테니, 넌 따라가서 땔아이 뒷바라지해라.”

친정어머니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들었

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내내 그녀와 함께 살 아온 친정어머니였다. 친정어머니는 어렵게 얻은 남동생보다 표 나게 그녀를 예뻐했다. 오죽했으면 어린 시절, 남동생에게 “차조심 안하면 사고 난다” 그랬더니 “누나, 나는 죽어도 돼. 어머니가 예뻐하지도 않는데 뭐.” 그랬을까. 그때 그녀의 생각은 하나였다. 평생 자신만 바라보며 살았던 엄마처럼은 절대 살지 않겠다는 것. 그때부터 친정어머니는 그녀의 반면교사였고 그녀의 화두는 ‘자식 떠나보내기’ ‘뒷방 노인 되지 않기’ ‘아름다운 노후 보내기’가 되었다.

고동창은 몰래몰래 공부를 시작했다. 노인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고, 시몬 드 보부아르와 폴 투르니에가 쓴 책들을 찾아 읽었다. 당시만 해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던 때라 턱없이 자료가 부족했다. 노년, 노인이 거론되는 세미나도 쫓아다녔다. 점차 공부에 재미가 붙었다. 처음에는 무슨 공부냐며 뜨악해 하던 미국의 큰아들도 《뉴욕 타임스》에 실린 기사를 팩스로 보내주고 필요한 서적을 사서 보내주었다. 그렇게 조금씩 알게 된 것들을 노트에 적어나갔다. 나중에 복사해서 주위 사람들과 나눠 읽을 생각이었다.

“맨날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어느 날, 모처럼 일찍 집에 돌아온 둘째아들이 이렇게 물었다(둘째아들은 〈처녀들의 저녁 식사〉 〈하녀〉로 유명한 임상수 감독이다). 얼굴이 화끈거려 공책을 책상 밑으로 밀어 넣고 하등자등 자리를 떴다.

“재미있는데요. 책으로 출간하면 어때요?”

그사이 공책을 보았는지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펼쩍 뛰었다. 책을 내는 건 특별한 사람들의 일로만 여기던 터였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어미를 치켜세워 주느라 그랬나 싶었는데, 며칠 뒤 컴퓨터 앞으로 그녀를 불렀다. 다짜고짜 일주일만 워드를 연습이라고 했다. 악필이긴 하지만 나름 글씨 빨리 쓰는 걸로는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면 큰소리를 쳤다.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현대는 새로운 행성에 이민 온 것처럼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한다’는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의 말이 떠올랐다. 그때 배운 워드 솜씨로 여기저기 글을 쓰고 있으니 잘한 일이다 싶다.

첫 책이 나오는 데는 10년 넘게 걸렸다. 손자, 외손자를 돌보아주는 데 3년을 보낸 탓도 있지만,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더 컸다. 그러저럭 책 한 권 분량의 원고가 모아지자 출판 일을 하는 남편 지인에게 부탁하면 어떨까 했다.

“왜 그러세요? 제발 인맥 그런 거에 기댈 생각 마세요. 그냥 출판사 여기저기 보내 보세요. 좋은 글이니까 분명 나서는 곳이 있을 거예요.”

아들의 첫 말에는 창피했지만, 그 다음 말에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예순둘 되던 2000년에 첫 책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가 나왔다.

메이퀸이 된 공채1호 여기자

고동창에게는 평생 두 가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그 하나는 메이퀸이고, 또 하나는 한국일보 공채 1호

고광애

- 1937년 서울 출생
- 1958년 한국일보 기자 공채 7기 입사
- 1959년 모교 사학과 졸업
- 저서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 『실버들을 위한 유쾌한 수다』, 『나의 아름다운 죽음을 위하여』, 『나이 드는 데도 예의가 필요하다』 등

여기자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다정다감하고 생활력 강한 분이었다.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1·4 후퇴로 이어지는 힘든 시기에 도 고생스럽다는 생각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버지 덕분이었다. 그런 아버지께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에 그녀는 인기학과였던 영문과 대신 사학과를 택했다. 1기 입학생이니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2학년쯤 되면서 그 꿈을 포기했다. 그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동기들이 꽤 많았고 경쟁해도 승산이 거의 없어 보였다. 그 무렵 한국일보에서 공채 신입기자를 뽑는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그녀는 신문사 최초의 공채 1호 여기자가 되었다. 학교에 다니면서 견습 기자 생활을 병행해 나갔지만 어느 하나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다.

3학년 봄 그녀는 메이퀸으로 뽑혔다. 다들 부럽다고 했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대관식 날 겨우 두 명만 참석할 정도로 동기들에게는 질시의 대상이었고, 차만마셔도 밥 먹었다는 등, 사귄다는 등 소문이 나돌았다. 메이퀸이라는 사실을 떠들고 다닌 적도 없는데, 선 살까지 그녀는 사람들에게 “왜 재벌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여기자로 사는 것 역시 편견과의 싸움이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여자는 검은 테 안경을 쓰고 멋이 뭔지도 몰라야하고, 예쁜 여자는 볼 것도 없이 무식한 깅통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다.

하루는 『현대문학』에 실린 손창섭 소설이 참 좋다고 했더니, 옆에 앉은 기자가 “미스 고가 그런 것도 알아?” 라며 놀림 섞인 말을 했다. 똑같이 시험 치고 들어 갔는데 그런 취급을 했다.

신문사 선배 기자였던 남편 임영 씨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큰일 났다 싶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쪼개 써도 늘 돈이 부족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가면 월급이 바닥을 보였다. 그러니 평생 아버지의 그늘에서 돈 걱정 없이 살아온 친정어머니의 눈에 남편이 찰리 없었다. 궁색한 살림에서 벗어나볼까 싶어 의류 대리점을 한 적도 있었다. 나름 시장 조사도 하고 먼저 시작한 대리점도 다들 성공했다는 주위의 말에 힘을 얻어 시작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몇 년도 못 버티고 가게를 접어야 했다. 그 일로 둘째아들은 자원입대하고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바로 취직할 수 있는 학교로 입학해야 한다”는 오빠 말에 딸은 저 가고 싶은 대학을 포기하고 외대로 진학하기까지 했다. 지금도 고동창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준 세 아이들이 그저 고맙고 대견하기만 하다.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점만 빼면 남편은 자상하고 늘 앞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 남편은 우리나라 최초로 영화 리뷰를 기사로 실었고 영화평론가로도 이름을 날렸다. 평생 한 번도 남편은 그녀를 ‘누구 엄마’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항상 ‘광애’ ‘고광애’라고 할 만큼 아내, 어머니보다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그녀를 대해줬다. 언젠가 희곡 쓰는 이근삼 씨가 집에 들른 적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아직도 주부 이름이 살아있는 집이 다 있네” 그랬을 정도였다.

그녀의 첫 책이 나오자 주위 사람들은 “혹시 남편이



메이퀸 대관식날 이현구 문리대학장(오른쪽)과 함께

대신 써준 것 아냐?” 하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다들 남편이 신문기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럴 만도 했지만 웬지 좀 억울했다. 남편이 그녀의 글쓰기를 도와준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신문사에 보낼 칼럼을 쓰는데 어깨너머에서 보고 있었던지 남편이 불쑥 이렇게 말했다.

“문장은 짧게, 솔직하게…….”

짧은 말이었지만 남편은 그녀에게 좋은 글쓰기의 기본을 일러준 셈이었다.

세대 간의 소통 부재가 노인 문제 불러와

그녀가 『실버들을 위한 유쾌한 수다』를 출간한 것은 2003년, 첫 책이 나온 지 3년 후였다. 책이 나오고 난 후부터 4년 전까지 그녀는 한 주도 쉬지 않고 여러 방송국에서 노인문제를 상담해주는 일을 해왔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활기찬 새 아침 김성은입니다〉 〈아침마당〉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등이 대표적인 방송이다.

고 동창은 노년층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 원인은 세대 간의 소통 부재라고 잘라 말한다. 그녀가 책을 쓰고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런 사회적 소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이다. 그녀의 말이 뉴스로만 노인 문제를 접했던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고, 단순히 노인 문제를 열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년기를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고광애 동창은 이렇게 말했다.

“자식이 부모한테 독립하듯 부모도 자식한테서 독립해야 해요. 인생에 있어 홀로서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바로 노년기예요. 뒷방 노인으로 가족 속에서 외로이 사는 것보단 혼자서도 즐거운 노년을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해요. 또 젊은 세대들한테 대접받으려면 먼저 염치를 차리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끊임 없이 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죠.”

그 말 끝에 그녀는 부모라는 위치와 나이에서 생기는 모든 권위를 버리되 노인으로서의 정서적인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 늘 호기심을 잃지 않고, 건강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

고동창이 노년 문제와 함께 관심을 두는 분야는 죽음이다.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각당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독서 모임에 참여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모임은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10~15명이 모여 죽음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거나 방송 스케줄만 아니라면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그녀는 벌써 148권의 책을 읽었고 얼마 전부터는 책 선정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 임종은 최대한 짧고 아프지 않게 맞자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다. 이를 위해 그녀는 진즉부터 임종 시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 처치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 의료의향서를 쓰고 이미 공증까지 마친 상태이다.

지난해 늘 등산으로 건강을 지켜오던 남편이 갑자기 고관절로 쓰러졌다.

“쓸데없이 내 생명을 늘리려고 애쓰지 마. 안공호흡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남편이 그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며칠 전에 그녀가 하는 죽음 공부에 대해 묻고는 자기도 그렇게 죽고 싶다던 남편이었다.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 처치를 거부하고 남편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최대한 맞춰 살겠다는 다짐을 했다. 얼마 후 자식들의 바람대로 스프가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인 딸네 집 근처로 이사도 했다.

지난해 그녀는 2009년 말부터 신문, 잡지 등에 실린 글을 모아『나이 드는 데도 예의가 필요하다』라는 책을 냈다. 60년 전 은사께서 그 책을 보고 “내 마음과 똑같더라”라고 했을 때는 스스로도 대견했다. 요즘도 행복하게 노년기를 보내자는 메시지를 담아〈헤이데이〉〈노인신문〉〈한국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다. 글 쓰고 책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녀는 여든의 나이에도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했다.

나이 들어 좋은 점은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라는 고동창. 순간순간 노년기가 가져다준 자유와 평화를 최대한 즐기려고 한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분명 아름다운 노후를 사는 사람이다.

글·윤혜숙(신방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특집 / 3대 이화가족 심계섭, 고승혜 동창과 권유진 재학생

“여자라면 이대 아닌가요?”



권유진 씨의 한국외국인학교 졸업 당시 3대가 찍은 사진

친인척까지 이화동창 열 명

올해 모교 영문과 신입생이 된 권유진 씨는 3대가 이화가족이다. 어머니 고승혜(영문 88) 동창, 외할머니 심계섭(약학 57) 동창까지 모교 동창이다. 지난 3월 11일(금) 서울 태평로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이들은 첫마디에 “3대 이화가족이 흔하지 않나요?” 라며 의아한 듯 물었다. 친인척 중에 모교 출신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권유진 씨의 작은할머니, 고모, 작은외숙모, 고승혜 동창의 사촌 자매와 사촌 형제의 부인들까지 줄잡아 10명이 모교 출신이다. 학과도 교육학과, 물리학과, 사회학과, 가정학과, 영문과, 불문과 등 다양하다.

권유진 씨가 모교를 택한 것도 가족 영향이 크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고, 한국외국인학교를 졸업한 그는 이번 입시에서 모교 외에도 미국의 보스턴대, 뉴욕대(NYU)를 포함, 국내의 여러 사립대학에도 동시 합격한 재원이다. 권씨는 별 고민 없이 모교 영문과를 택했다 한다.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엄마에게 이화여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캠퍼스에 자주 놀러가기도 했고요. 또 친인척 중에 이대 출신이 워낙 많아서 ‘여자라면 이대’라고 각인된 것 같아요. 최종 결정하면서 다른 대학도 둘러봤는데, 이때 이대에 대한 마음이 더 굳어졌죠. 낯설지 않아서 편안한 점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대 선배님들의 분위기에 끌렸어요.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대생들과는 달리 이화여대생은 학생인데도 커리어우먼처럼 당당해보였지요.”

“입학식 당시 최경희 총장님 말씀에 감동받았어요”

어머니 고승혜 동창은 지난 3월 2일(수) 개최된 입학식을 통해 다시 한 번 이대 선택이 옳았

음을 느꼈다고 한다.

“입학식 때 뵈 최경희 총장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교육자라는 인상을 받았죠. ‘저희 학교에 맡겨주셨으니 잘 키우겠습니다’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진짜 든든했어요. ‘내 아이가 지식뿐 아니라 인성까지 구비한 인재로 자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찡할 정도였죠.”

큰 고민 없이 이대를 선택한 권유진 씨와 달리 어머니 고동창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유진이는 개성이 강하고 창의력이 있는 아이라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이대보다 활기찬 남녀공학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경희 총장님의 교육철학을 듣고나니 여기에 보내기 잘했다는 확신이 섰어요.”

권씨와 고동창은 모교에 대한 추억이 많았다. 종종 학교 앞 ‘오리지날 분식’에서 즉석떡볶이를 먹었고, ‘가미’ 냉면과 빙수를 먹기도 했다. 봄꽃이 만발한 계절이면 모교의 목련꽃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고동창은 “이대를 떠올리면 늘 새하얀 목련꽃이 만발한 봄날의 캠퍼스가 그립다”고 말했다.

심계섭 동창은 모교 약대 출신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다. 심동창은 “당시 약학과는 서울대와 이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며 “의예과보다 인기가 많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약학과에서 요구되는 공부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당시는 치열하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약학과는 달랐어요. 공부를 워낙 많이 시켜서 별을 보면서 하교할 때가 많았지요. 본관 옆에 있는 약대 건물에서 실험하던 추억, 5월 축제 때 초록색 학교 로고가 박힌 흰색 한복을 입고 매스게임하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권씨는 “할머니는 한 번도 재시험을 안 보셨대요. 친구들이 할머니 노트를 돌려봤다고 들었어요”라고 말을 보탰다. 고동창도 “당시 엄마 별명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이었던 걸로 알아요”라며 덧붙였다. 심동창은 요즘에도 학창 시절의 친구들을 자주 만난다. 매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은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눈다고 한다.



할머니 심계섭 동창이 여대생 시절 찍은 사진



엄마 고승혜 동창이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

고승혜 동창은 영문과 유종호 교수의 강의가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다고 했다. “진정 학자다운 분이셨어요. 특히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 큰 울림으로 남아요. ‘누구든 뜻을 세우면 이룰 수 있다. 빨리 이루든 늦게 이루든 시간차는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이룬다’며 무엇이든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고동창은 ‘채플’에 대한 기억도 강했다. 그는 그 어떤 수업시간보다 매주 월요일 아침 채플 시간을 좋아했다고 한다. “수업 시간에는 종종 늦었지만 채플 시간은 한 번도 안 늦었어요. 월요일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로 채플 시간이 좋았어요. 한 주의 시작을 채플로 한다는 자체도 너무 좋았지요. 그때 불렀던 찬송가,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좋았어요.”

권유진 씨, 책과 번역서 발간

심계섭 동창은 약학과 졸업 후 몇 년 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다 신촌역 부근에서 ‘장안당약국’을 운영했다. 당시 약사는 환자와 상담 후 환자에게 맞는 약을 지어주는 조제약사의 역할을 했는데, 심 동창의 약국은 매우 잘 됐다고 한다. 약이 잘 듣는다는 소문이 퍼져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심 동창은 8년 만에 약국 운영을 그만뒀다. 잘 나가는 약사보다 세 아이의 엄마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고승혜 동창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다. 모교 영문과 졸업 후 외국계 은행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영국문화원에서 일하던 그는 10년 만에 그만뒀다. 첫째에 이어 둘째 유진 씨까지 초등학생이 되자 직장맘을 접고 전업맘을 선언한 것이다. 남편(가천의대 내과 권오상 교수)은 아내가 일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고동창은 좋은 엄마가 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뒀다고 한다.

약학과를 졸업한 심계섭 동창은 이과 출신임에도 감수성이 남다르다. 책을 좋아해서 80대에 접어든 요즘에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책을 읽는다. 최근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을 읽었다고 한다. 유진 씨는 외할머니에 대해 “아직도 소녀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예쁜 것을 좋아하신다”고 말했다.

친정엄마의 영향을 받아 고승혜 동창 또한 독서를 즐겼다. 혼자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두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줬다고 한다.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계획 책을 읽어주셨듯, 저 역시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만화책이든 소설책이든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읽어줬지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권유진 씨가 낸 책 두 권(하나는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책으로 낸 것, 또 하나는 중학교 때 낸 번역서)



계속이요. 두 아이 모두 감성이 풍부한데, 독서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권유진 씨의 오빠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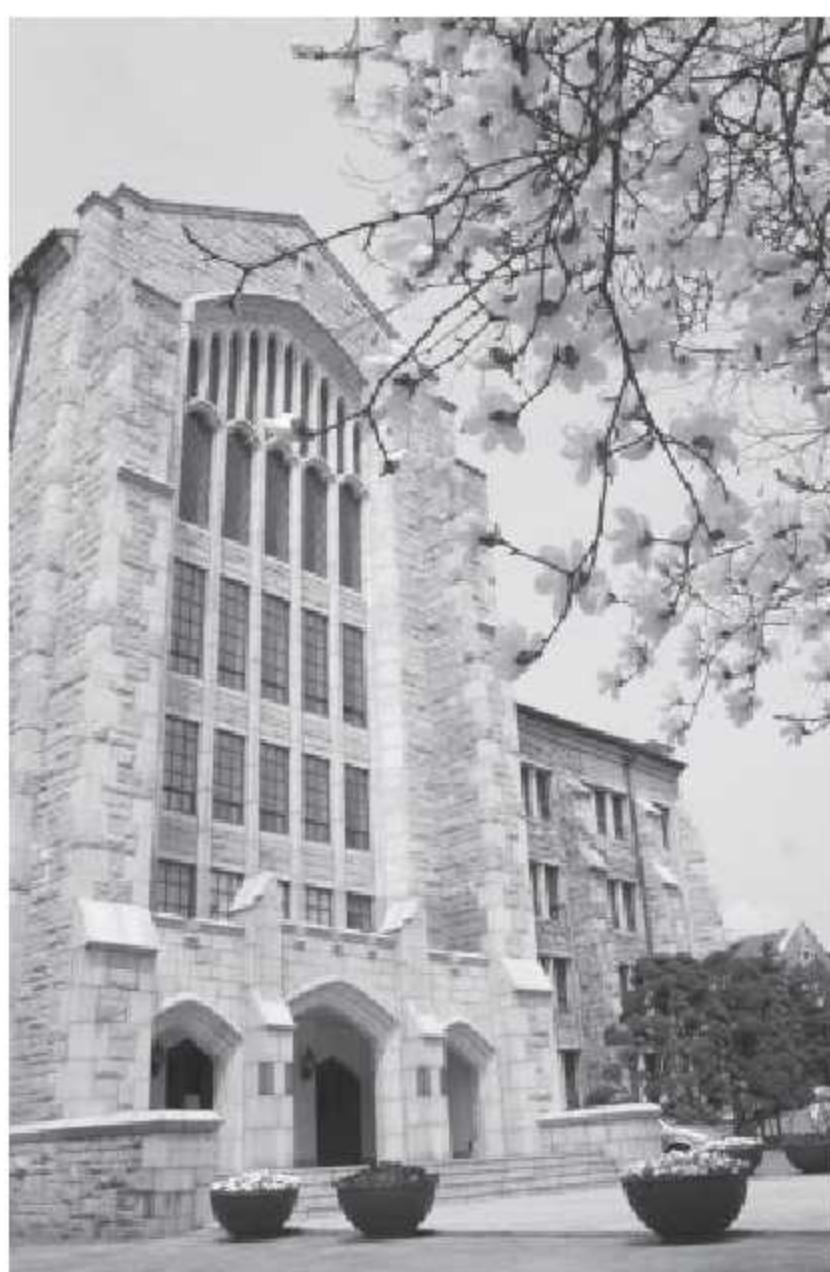
권유진 씨 또한 문학에 조예가 깊다. 고승혜 동창은 “유진이가 글을 잘 써요. 이 아이가 쓴 글은 이상하게 가슴을 찡하게 해요”라고 말했다. 심계섭 동창도 유진 씨를 보면 “이 아이가 글 솜씨가 대단해요”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유진 씨는 이미 책을 두 권이나 낸 작가이다. 초등학교 때에는 『권빵의 4학년』이라는 책을 냈고, 중학교 때에는 『하하 호호 안경 이야기』라는 영문 번역서를 냈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그는 장르에 따라 한글과 영문을 넘나든다. 앞의 책은 유진 씨의 일기장을 책으로 낸 것으로, 출판사 지인의 권유로 출판하게 되었다고 한다.

권유진 씨의 꿈은 시나리오 작가이다. 특히 상상력이 빛나는 짤막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미래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 최근엔 AI(인공지능)를 소재로 한 시나리오 집필을 염두에 두고 해당 분야를 파고들고 있다. 그는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해보고 싶어요. 문학탐방 동아리도 좋고, 연극이나 영화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유진 씨가 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주체적인 생활’이다. “남녀공학을 다니면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리더 역할을 많이 하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한테 기대는 면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대에서는 무슨 일이든 여자들이 스스로 해야 하니까 주체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기대됩니다.”

글·김민희(국문 99, 이화동창 편집위원)



‘리마인드 채플(Remind Chapel)’에 동창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총동창회에서는 5월 30일(월) 오후 2시 대강당에서 ‘리마인드 채플(Remind Chapel)’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화동창으로서 큰 자랑 중 하나가 기독인으로서 대강당에서 가졌던 채플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순수하고 빛나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추억하는 기회를 드리고자 준비한 행사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나의 믿음과 나의 청춘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6년 5월 30일(월) 오후 2시

장소 : 대강당

자격 : 이화동창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랑스런 이화의 얼굴

2015년 '올해의 스승상' 수상한 홀트학교 박에스더 동창

"장애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해요"



2015년 '올해의 스승상'을 받은 박에스더 동창(특교 94)은 19년째 홀트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올해의 스승상'은 2002년부터 교육부와 방일영 재단이 공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으로,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신념과 열정으로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전국의 선생님들을 발굴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박 동창은 13회 수상자로, '중증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이끌고 오케스트라단까지 창단해 학생 스스로 장애의 벽을 넘도록 이끌어 준 진정한 스승'이라고 방일영 재단은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에스더 동창을 만나기 위해 홀트학교를 찾았을 때 박 동창은 자신이 지휘자로 있는 홀트학교 예그리나 오케스트라의 연습실에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교실 3개를 터서 만든 널찍하고 쾌적한 오케스트라 연습실에는 박 동창이 '올해의 스승상' 상금으로 기증한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박 동창은 일반 피아노보다 뚜껑을 열어 피아노의 건반과 줄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랜드 피아노가 장애 학생들에게는 훨씬 자극이 되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주었다.

매체에서 박 동창의 기사를 접했을 때 매우 뿌듯했다고 말하자 박 동창은 "저에게 단독으로 주어진 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며 겸손해 했다. "아이들이 좋아 즐겁게 수업했고, 아이들 덕에 오히려 제가 행복하지요. 음악을 통한 수업이라서 더욱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동참해주셨어요. 이 상은 제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또 다른 일들을 계속 하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제가 가는 길에 징검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생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

박 동창은 지적 수준이 낮거나 자폐 성향이 있는 학생들도 적절하게 지도하면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여러 악기가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 운영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2008년 오선 악보의 계이름 조차 읽기 어려운 장애 학생들의 음악교육을 위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대신 '1, 2, 3, 4, 5, 6, 7'로 숫자를 붙인 '숫자 악보'를 고안했다. 숫자 악보를 사용해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초등 음악 교과서의

곡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가르쳤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2년 홀트학교 내에 ‘예그리나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예그리나 오케스트라는 2013년에 교육부 지정 학생 오케스트라로 선정되었고, 그해 6월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에서 일반 학생들과 겨루어 우수상을 받았다. 박 동창의 남다른 음악교육에 대한 열정은 어디서 온 것일까. 혹시 특수교육 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꿈꾼 적은 없는지 물어보았다.

“제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법활동이라고 항구가 있는 작은 마을이지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 모교 음대를 졸업한 분이 오르간 주자로 오셨어요. 우아하고 유머러스한 데다 맵시도 좋은 분이라 저는 그분을 마음속으로 동경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처음 피아노를 가르쳐주셨지요. 그분에게 피아노를 배우면서 제가 상대음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이화여대에 대한 이미지가 무척 좋았고,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도 생겼어요. 선생님께 레슨을 받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음대 입시를 준비해보려고 서울의 한 유명한 교수님께 사사받기 위해 올라갔었죠. 그런데 교수님 앞에서 연주를 해야하는 분위기에 압도되어서인지 실력 발휘를 전혀 못했어요. 그날 저는 음대 진학에 대한 마음을 접었지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고 그해 겨울방학부터는 공부에 매달렸어요.”

음악에 대한 열정은 꺼지지 않고

음악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박 동창이 특수교육을 공부한 데는 깊은 뜻이 있었다.

“제게 청각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어요. 음대 입시를 포기한 후에 특수교육과를 망설임 없이 선택한 데에는 청각장애 동생의 영향이 커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수학교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동생



2013년 전국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밤벨을 연습하고 있다

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모교 특수교육학과에 진학한 뒤에도 음악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은 박 동창은 음악 관련 여러 과목을 열심히 찾아 들었다. 대학 4년 내내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것 외에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지만 마음 속에는 늘 음악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제가 입학한 해에 1학년 학생은 다른 단과대학에서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음대 원성희 선생님의 <합창> 과목과 황병기 선생님의 <국악의 이해>를 수강했어요. 당시 원성희 선생님의 합창 수업은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강생들 대부분이 음대생이었지만 까다로운 곡들을 거침없이 소화해내는 걸 보고 놀랐었죠.”

졸업 후 바로 특수교사 일을 지원했나는 물음에 박 동창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졸업을 한 뒤 음악에 대한 미련의 불씨가 다시 켜졌어요. 모스크바로 음악 유학을 가는 선교사님의 제안을 받고 목사님을 따라서 모스크바에 갔어요. 그네신 국립음악원에 입학하기 위해 몇 달 동안 그곳 교수님의 레슨을 받으며 한인 교회에서 하루 10시간



2015년 11월 4일, 홀트학교 주최 사랑나눔 뮤직페스티벌에서 연주 중인 예그리나 오케스트라

씩 연습했죠. 그런데 다음해 3월이 되었는데 그만 팔의 인대가 파열된 거예요. 결국 입학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치료를 위해 귀국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2 때처럼 이번에도 좌절해야 했죠.”

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박 동창의 얼굴은 아이처럼 밝았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대학 졸업 직후 홀트학교의 교사 제안을 고사하고 모스크바로 갔던 박 동창은 한국에 돌아와 다시 홀트학교에 지원하여 교사가 되고, 음악과 특수교육을 접목한 그만의 독창적 수업으로 지금 나래를 활짝 펴고 있기 때문이다. 예그리나 오케스트라와 ‘올해의 스승상’은 박 동창의 음악에 대한 집념과 특수교육 전공이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만나서 이루 어낸 결과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박 동창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해요. 음악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음악을 하고 있어요.”

오케스트라를 만들다

예그리나 오케스트라의 시작은 쉽지 않았다. 홀트 학교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밤벨을 연주하는 수업이 있었다. 박 동창은 그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 오디션을 볼 때 음악을 좋아하고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을 기준으로 선발을 했지만, 오케스트라 모집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학교장님의 권유와 이를 들은 광성양상불(현 태현악기)의 재능기부가 뒷받침되어 창단할 수 있었으며, 광성양상불은 현재까지도 악기 무상수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무도 우리 아이들이 현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다니던 근처 교회의 광성양상불의 재능기부로 악기 연주를 시작했어요.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라 그때는 제가 사비를 털어 재능기부를 해주신 선생님들의 식사를 대접했지요. 하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

었어요.”

창단 후 학예회에서 첫 연주를 한 후 주위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다. 물론 1명의 아이가 첼로 연주를 하기 위해 4명의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도움을 줘야 하는 등 쉽지만은 않았다. 악기를 연주하지 못했던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현악기를 배우고 익히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규모를 키워가던 오케스트라가 지금의 규모가 된 것은 2013년 교육부 지원을 받게 되면서부터였다.

2013년 예그리나 오케스트라는 전국 특수학교 중 유일하게 교육부 지정 학생 오케스트라로 선정됐다. 현재 4기 단원 30여 명이 노래,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을 배우면서 연간 50여 차례의 정기, 부정기 공연을 선보이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박 동창은 장애 학생들의 삶의 질과 가치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학교를 졸업해도 계속되어야 하는 교육 중 하나가 문화예술 교육이지요. 일반인도 그렇겠지만 장애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박 동창은 음악을 사랑하는 동창들의 재능기부를 열렬히 환영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예그리나 오케스트라에 대한 교육부 지원은 작년이 마지막이어서 고민이 커지만,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작년 하반기 예그리나 오케스트라를 후원했으며 올해의 지원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사는 한결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박 동창은 학창 시절 모교에서 배운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교육철학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수교육과 박승희 교수님께



2015년 ‘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한 박에스더 동창

배운 열정적 가르침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선생님께서는 교사라면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아이들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선생님께서는 방법론에 앞서 교사로서의 자세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모교가 아닌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있는 교육철학이지요.”

스승을 떠올리는 박 동창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 보든 보지 않든, 교사는 아이들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새기려합니다.”

박 동창의 이야기는 비단 특수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일반 학교에서도,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에도 언제나 해당되는 것이다. 다재다능하고 열정적이면서도 따뜻한 박 동창이 앞으로 가게 될 길에 징검다리가 많이 놓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글·전세영(사학 94, 이화동창 편집위원)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인도네시아 송사랑 동창

“은혜의 단비가 이 땅에 내리소서”



장애우 공동체 센터 공사 현장

”

2015년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어 폭염과 산불 연기에 시달리던 이곳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비 소식과 함께 이 땅의 메마른 영혼들에게도 성령의 단비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시각장애인 조코 부부와 함께 섬기는 주님의 정원에서는 장애우들이 모이는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 자립과 재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뒤편의 부지에 메기 양어장 및 땅콩과 옥수수 밭을 마련하여, 3~4개월마다 한 번씩 그 수확한 소득을 장애우 가정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작은 장애우 공동체 센터 건물을 위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부산 여전도연합회의 후원으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건물의 기초공사를 마쳐, 지금 4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건물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지 G마을에 있는 추수의 집 기도원에서는 고등

학교 과정의 기독 대안학교를 운영 중인데 현재 20명의 청년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5명의 고등학생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생 5명이 기도원에서 함께 숙식하며 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젊은 기도의 용사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모습들이 저희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과 감동이 됩니다.

아울러 외부의 일반 신자들과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는 주말 금식기도회 모임을 통하여 열심히 기도의 단을 쌓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식 기독교 미션 스쿨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복음 사역자로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격려하며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 3년째로 접어든 은혜의 국밥집은 비록 소규모 식당이지만 주 메뉴인 소고기 국밥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수 종류와 간식거리, 음료수 메뉴를 추가하여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K-Pop과 인도네시아 전통춤으로 서로의 문화를 나누었다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맛보는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무료 급식으로 소고기 국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은혜가 넘치는 맛있는 국밥집으로서 영육이 갈급한 자들을 계속하여 섬기고자 다짐합니다. 국밥을 요리하는 주인인 하리 아저씨는 이슬람교도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제가 예수님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드릴 때에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돌이켜 보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시간과 노력이 모두 헛된 것임을 고백하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캠퍼스 사역에서는 경제학 강의와 상담,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경적 세계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학기말에 캠퍼스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교육부 산하 국립 사범대의 교육개혁 세미나 발제자로 초대되어, 미래 교사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섬김과 봉사의 자세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한국-인도네시아 문화교류 행사로 강당에서는 부채춤과 K-Pop 노래 공연 및 인도네시아 지역별 전통춤과 노래 공연이 있었으며, 강당 옆 캠퍼스 광장에서는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맛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였지만, 1,000여 명을 넘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장애인 센터와 산지 기도원 등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서부 칼리만탄

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복음전도교회의 뼈오 전도사와 베데스타교회의 나탈리 전도사는 산지의 어려움에도 헌신된 주님의 종으로, 전도와 말씀에 힘쓰며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임마누엘하신 은혜의 단비가 이 땅을 덮어 참평화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이갑니다. 사랑의 줄과 기도의 끈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에 동역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잃은 영혼들을 위해 중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송사랑(보교 87) 동창

♥ 기도해주세요 ♥

1. 캠퍼스 사역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전파하며, 복음 사역자의 양육을 위하여
2. 추수의 집 기도원의 청년 학생들과 은혜의 국밥집 주말 무료 급식을 위하여
3. 산지 N마을 하나님의 집 예배당 신축과 A마을 새 신자 기도회를 위하여
4. 산지 B마을 축복의 집 공동체와 칼리만탄 교회 공동체 2곳을 위하여
5. 장애우 공동체 센터 건물 완공 및 재활 교육, 메기 양어장, 밭농사를 위하여
6. 연로하신 부모님의 평강하심과 멀리서 대학 생활하는 두 자녀(지훈, 지민)의 학업을 위하여

모교 소식

130주년 맞은 이화, 2016년 이화가족 신년인사 개최

모교는 1월 4일(월) ECC 이삼봉홀과 다목적홀에서 ‘2016년 이화가족 신년인사’ 행사를 갖고 새해의 문을 열었다. 창립 130주년을 맞아 이화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희망찬 다짐과 각오를 새로이 하는 신년인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최경희 총장, 전·현직 교직원, 이화의료원 및 병설학교 교직원, 학생 대표 등 이화의 모든 구성원이 참석했다.

신년인사에서 장명수 이사장은 “130년 전 이화학당을 설립한 이래 많은 스승과 선배들이 모든 것을 바쳐 이화를 세계에서 가장 큰 여자대학교로 만들었다”며 “이화가 인류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뛸 것”을 당부했다.

최경희 총장은 “2016년은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임을 강조하며 “합심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현명함을 가진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丙申年)은 이화의 저력과 일맥상통한다”며 “신뢰와 열정으로 합심하여 이화의 공동체 구성원이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후정 명예총장은 “이화는 지난 130년간 협심하여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재창조하여 선구자적 역사를 만들어왔다”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이화의 존재 가치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덕담했다.

신년인사 후에는 음악대학이 준비한 특별공연이 이어졌다. 정호정 교수(건반악기 전공)의 피아노 반주를 배경으로 소프라노 박미자 교수(성악 전공)가 <꽃구름 속에>와 <일바치오(Il Bacio)>를 선보였으며, 이어 참석자들은 다과와 함께 새해인사와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5회 이화인 독서대회 ‘2016 이화 에크리’ 개최

모교 호크마 교양대학은 재학생의 독서 및 성찰적 사유능력 함양을 위해 1월 8일(금) ECC 이삼봉홀에

서 ‘2016 이화 에크리’를 개최했다.

2012년부터 매해 열린 ‘이화인 독서대회’를 새롭

게 확대한 이번 대회에는 기존의 서평 부문은 물론 기행문 부문이 추가됐다. 서평과 기행문 중 하나를 선택해 주어진 시간 안에 자필로 글을 작성하는 백 일장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겨울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6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새로워진 독서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호크마 교양대학 장미영 학장(독어독문학 전공)은 “독서와 여행은 ‘타인의 삶에 대한 모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타인의 삶을 경험해봄으로써 자신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대회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1월 29일(금)에는 ‘2016 이화 에크리 시상식’이 열렸다. 1, 2차 및 최종 심사를 거쳐 서평 부문 16명, 기행문 부문 1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서평 심사를 맡은 호크마 교양대학 이경희 교수는 “이번 ‘2016 이화 에크리’를 통해 삶에 대한 고민과 내적 성찰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을 것”이라

고 전했다.

모교는 1980년대 선도교양 교과목 개발, 2002년 주제통합 교양과목 개발, 2009년 핵심교양 모형 도입에 이어, 2013년에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소통과 나눔의 창의적 인재육성’을 목표로 교양 교육을 개편했다. 2015년에는 모교가 교육부 ‘학부 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교양교육원’을 다양한 역량을 갖춘 조화롭고 지혜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호크마 교양대학’으로 개편했다.



이화인이 만든 제4차 ‘이화글판’, 새해를 맞이해 공개

모교는 1월 28일(목) 정문 배꽃벽 옆에 새로운 이화글판을 게시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교체된 이번 글판의 글귀는 ‘이화의 닻을 올려 세계를 항해하라, 그대의 꿈은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니’이다.

정문 배꽃벽과 더불어 학교의 얼굴로 자리 잡은 ‘이화글판’은 이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2015년 1월 신설되었다. 이번 네 번째 이화글판은 지난 2015년 11~12월 기획처 홍보팀이 진행한 ‘제2회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의 캐치프레이즈 부문 수상자인 모교 재학생 유은경 씨(사학 11 입학)의 문구를 캘리그래피 부문 수상자 모교 재학생 김나연 씨(디자인대학원 14 입학)가 직접 디자인하여 제작했다.

모교는 이화 구성원들의 의견을 아우르는 홍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2015년부터 매 학기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4



월에 진행된 제1회 공모전은 모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홍보아이디어 기획 △광고 포스터 △캐치프레이즈 △UCC △웹툰 등 5개 분야의 작품을 모집하였다. 2015년 11~12월에 진행된 제2회 공모전부터는 재학생, 교직원, 동창 등 모든 이화 구성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을 확대

했고, 참가 분야에 ‘캘리그래피(멋글씨)’를 추가해 다양한 작품이 응모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이화 창립 130주년을 기념한 ‘제3회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이 2월 22일(월)부터 3월 14일(월)까지 △엠블럼 △슬로건 △광고 포스터 △캘리그래피 △웹툰 부문에 대해 신청 접수를 받았다.

2015학년도 동계 교무위원 및 주요 보직자 워크숍, 전체교수회의 및 전체직원회의 개최

모교는 2월 16일(화) ‘2015학년도 동계 교무위원 및 주요 보직자 워크숍’에 이어 17일(수)과 18일(목) ‘2015학년도 동계 전체교수회의’와 ‘2015학년도 동계 전체직원회의’를 차례로 개최하고 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16일(화)에는 LG컨벤션홀에서 ‘교무위원 및 주요 보직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워크숍에는 최경희 총장을 비롯해 부총장, 각 대학(원)장, 중앙행정기관장, 주요 부속기관장으로 구성된 교무위원과 주요 보직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총장은 “변화의 시대에 대학이 처한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직자들이 이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과 사명감을 갖고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기획처장, 입학처장, 재무처장이 각각 △대학이 처한 대내외 상황 △대입 패러다임 변화와 2018~2021년 입학전형 개선 전략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각처의 발표를 통해 학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학교 발전방안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학전형 개선 방안’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열린 토론을 이어갔다.

17일(수)과 18일(목)에는 ‘전체교수회의’와 ‘전체

직원회의’가 차례로 개최됐다. 17일(수) 김영의홀에서 열린 ‘2015학년도 동계 전체교수회의’에는 최경희 총장을 비롯해 500여 명의 교수가 참석했다. 최 총장은 “교육·연구뿐만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창립 13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인 만큼 이화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이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화동창 기영화(행정 8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K-MOOC 대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전 세계 대학이 직면한 온라인 콘텐츠 경쟁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각 처별 업무 보고에서는 업무 현황 및 계획 보고를 통해 모교의 주요 현안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18일(목) 중강당에서 열린 ‘2015학년도 동계 전체



직원회의'에는 18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해 모교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계획을 함께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내 우수 직원, 우수 부서, 행정 서비스 우수 부서 표창과 함께 대학 재원 다변화 유

공자 교육부 부총리 표창, 한국대학신문 회장상, 국립국제교육원 개인공로상, LMO 연구시설 현장지도·점검 상시노하우 우수사례 표창 등 교내·외 표창을 통해 모교의 우수 직원과 부서를 격려했다.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6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행사 개최

모교는 2월 29일(월) 대강당에서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2,477명, 석사 1,190명, 박사 130명 등 총 3,79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최경희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교무위원 등 주요 내빈과 졸업생 및 그 가족이 참여했다.

최경희 총장은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지난 130년 동안 이화가 배출한 21만여 명의 동창이 세계 곳곳에서 이화의 명예를 빛내며 활약을 하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이화의 선배들처럼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주역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졸업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이화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자기 발전의 힘을 개인의 삶에서 구현할 것 △세계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다양성 속에서 미래를 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 △일생을 걸고 도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찾아 매일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학부 졸업생 중 최연소자는 만 21세이며, 최고령자는 만 43세이다. 최고령 졸업생인 영어교육과 김태연 씨는 시각장애 1급이라는 역경 속에서도 우수 졸업생의 영광을 얻었으며 서울시 공립(국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도 최종 합격하였다. 수석 졸업자는 단과대학별로 1명씩 총 11명이 선정됐으며, 귀순북한동포 6명과 지체 및 시각·청각 장애를 가진 재학생 6명도 학사모를 썼다. 또한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장학생 4명을 포함해 르완다, 부룬디,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일본, 중국, 캐나다,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총 36명의 외국인 학생들도 학부 졸업장을 받았다. EGPP는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를 선발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모교만의 특별한 학위 과정이다.

학위수여식에 앞서 2월 26일(금)에는 '2016학년도 입학식'을 갖고 3,424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입학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최경희 총장, 주요 보직자 등이 함께하여 새내기 이화인의 입학을 축하했다.

최경희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올해 130주년을 맞이한 이화는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적 여성 교육의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21만여 명의 동창을 배출한 세계적 명문 대학이 됐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화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이 바로 이화의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대한 이화의 선배들이 개척한 길 위에서 여러분의 이상과 꿈을 마음껏 펼쳐 나가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새내기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꿈을 갖고 멀리 내다볼 것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쌓아갈 것 △폭넓게 듣고 질문과 대화를 통해 대학생답게 공부할 것 △이화의 모든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입학식 후에는 신입생 환영행사 ‘Welcome to Ewha’가 이어졌다. KBS 아나운서 박은영(무용 05) 동창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재학생 대표와 함께 대학생 활동 노하우, 학교 소개, 성공적 사회진출 비결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SBS 신인 개그맨 임지현(체육 15) 동창이 특별 게스트로 깜짝 등장

했는데, 임 동창은 “이화 안에서 개그맨의 꿈을 이루었듯 학교가 모든 이화인의 꿈이 실현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의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알찬 대학 생활을 즐기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Welcome to Ewha’가 진행되는 동안 ECC 삼성홀에서는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환영행사인 ‘Welcome to the Ewha Family’가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신입생 가족 700여 명을 초청해 ‘잘 가르치는 대학(ACE) 이화’의 우수한 교육과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특히 총장 및 보직 교수와 함께하는 대화 시간에는 학교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져 학부모와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모교, 학군단(ROTC) 유치 대학으로 최종 선정

모교는 2월 24일(수) 학군단(ROTC·학생군사교육단) 유치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국방부는 2015년 10월 우수한 여성 장교의 육성을 위해 여자대학에 학군단을 추가 설치하기로 밝히고, 12월 모교를 비롯해 광주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등 4개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다. 국방부의 서류심사, 현지실사, 최종심의 절차를 거친 결과 학군단 유치 대학으로 모교가 확정되었다.

이번 학군단 유치 심사에서 모교는 △다양한 병과에 적합한 모든 전공 분야의 탁월한 역량 △입학에서부터 임관 이후까지의 전 생애적 후보생 관리 시스템 확보 △국제협력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이화의 글로벌 교육 인프라 △군의 사회적 지지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21만 이화동창 네트워크 등 이화여대만의 차별성을 인정받았고, 교육인프라 측면에서 학군

후보생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역량이 높이 평가됐다.

모교는 3월부터 8월까지 학부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30명의 학군 후보생을 선발하고, 11월 1일(화)부로 학군단을 창단해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학군단 유치를 통해 모교 졸업생들의 경력개발 경로가 확대됨과 동시에 탁월한 리더십 역량과 진·선·미의 이화정신이 군까지 확대됨으로써 사회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 소식

박물관, '소장품 상설전' 개최

모교 박물관(관장 장남원)은 3월 2일(수)부터 그림과 글씨, 근·현대미술, 도자공예, 금속공예 등 4개의 소주제를 바탕으로 소장품을 소개하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품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후기 궁중기록회와 초상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보물 638호 '기사계첩'과 정선, 이경윤, 김정희 등 유명 서화가들의 작품이 다수 전시되고 있으며, 특히 개성의 고려 태묘용 제기였던 보물 237호 '청자 순화4년명호'가 오랜만에 일반에 공개되었다.

또한 박수근, 도상봉, 박서보, 이종우 등 대가들의 작품과 김보희, 이불, 윤석남, 정광호 등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 예술 감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상설전은 올해 말까지 계속되며 주요 유물은 교체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5월에는 이화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다양하게 개최된다. 기획전시관에서 열리는

'목공전'(가제)과 함께 기증전시관에서는 '이화, 130년'(가제)이 개막되며, 담인복식미술관에서는 '조선 시대 신'(가제) 전이 열릴 예정이다. 전시는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문의 및 교육 프로그램과 단체 관람 예약은 전화(02-3277-3675) 및 이메일(museumedu@ewha.ac.kr)로 가능하다.



자연사박물관 소식

특별기획전 '공학, 자연을 만나다' 개최

모교 자연사박물관(관장 원용진)은 '공학, 자연을 만나다'를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전시는 11월 30일(수)까지 모교 자연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자연 속의 공학적 요소들을 집중 조명하였다.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단체예약은 홈페이지 (<http://nhm.ewha.ac.kr>)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은 예약 없이 관람 가능하다. 또한 관람 일

주일 전까지 전화(02-3277-4700)로 예약시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들을 수 있다.

모교 자연사박물관은 1969년 설립된 국내 최초 자연사박물관으로 20여 만 점 이상의 자연사 표본을 소장, 전시하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학교 및 사회 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은 독창적인 주제의 자연사 전시를 직접 기획하고, 모교 조형예술대학의 시각·영상 분야 디자인 협업을 통해 매해 새로운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세계로, 미래로 향하는 평생교육의 길잡이,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으로 개원한 후 32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평생교육을 선도해온 모교 평생교육원이 2016년 3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인생 100세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다문화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요구 또한 많아지고 있다. 모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 미래 사회 지식인 양성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다양한 교육 과정(학점은행제 과정, 자격증 과정, 전문교육 과정, 최고지도자 과정, 교양교육 과정, 이화뮤직아카데미, 위탁 교육 과정 등)을 개설하여 세계화 속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지식인을 양성하고 있다.

〈자격증 과정〉은 '예술융합교육지도사', '이미지컨설턴트', '미술심리지도사', '티인스트럭터', '놀이심리상담사' 등 20여 개의 전문 분야에 대한 실제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직업적·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개설된 〈전문교육 과정〉은 '디톡스주스 전문가', '비폭력대화', '포슬린페인팅', '보태니컬아트' 등 20여 개의 과정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교양교육 과정〉은 '생활 수필', '테마가 있는 음악여행', '메디치 문화예술 강좌' 등이 대표적이다.

■ 동창에게 수강료 5% 할인 혜택

매년 3,500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모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에서 '배움의 길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또한 모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은 모교 졸업생에게 수강료 5%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졸업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처 02-3277-3111~6, <http://sce.ewha.ac.kr>)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문화예술교육원

모교 문화예술교육원은 2013년 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음악, 국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총 6개 예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공인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문화예술 교육 전공자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본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부여하며, 문화예술 교육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창들을 중심으로 창의적, 적극적인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사협회 창설을 계획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경우 2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문의처 02-3277-3111~6, <http://arte.ewha.ac.kr>)

체육대학

회장__박경실(체육 78)

양평에서 신년모임 개최

1월 22일(금)부터 23일(토)까지 양평에서 건미 동창회 임원진들과 함께 신년 모임을 가졌다. 체육과 건강 미인들의 모임 건미 동창회는 2015년 체육학과 70주년을 맞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으며, 이날 모임은 2016년 동창회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또한 올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제18대 건미 동창회 임원진들과 함께하는 첫해로서 박경실 동창이 제18 대 건미 동창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건미 동창회는 앞으로 동창회 장학사업, 선후배 유대 강화 등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동창들의 참여를 높이고, 각 학번별 모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평에서 신년 모임을 가진 건미 동창회 임원진들

의과대학

회장__오혜숙(의학 78)

영닥터스포럼, 송년회로 한 해를 마무리

2015년 9월 5일(토) 나인트리컨벤션 그랜드볼룸에 서 동창과 내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과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동창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동창회는 학술강연에 이어 15대부터 19대까지 동창회장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의과대 70주년 기념포럼을 개최하였다.

2015년 10월 18일(일), 강원도 철원 지역 안보 및 유적여행을 주제로 회장 오혜숙, 목동병원장 유경하 (84) 동창을 비롯하여 73명의 동창이 참여한 가운데 가을 야유회를 진행하였다.

2015년 11월 14일(토) 6시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제8회 영닥터스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



의과대학 2015년 송년회 및 의전원 해외의료봉사팀 들판 바자회

에는 의전원생 및 동창 95명이 참석하였으며, ‘아주 특별한 영락터들 – 우리의 삶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창들을 초대하여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2015년 12월 5일(토) 오후 4시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2015년 송년회 및 의전원 해외의료봉사팀 돋기 바자회가 열려 192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바자회 물품판매 및 성금 모금,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공연으로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기졌다. 2015년 12월 15일(화) 오후 7시에는 달개비에서 청소년 쉼터 소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어울림쉼터 김인자 소장을 비롯한 8명의 쉼터 소장들이 함께하였고, 동창회에서는 오혜숙 회장과 상임이사 7명이 참석하였다.

간호대학

회장 __ 김진향(간호 73)

원로교수, 증경회장, 교수, 기관장, 동창회 임원 신년모임

1월 15일(금) 오후 12시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간호대학 원로교수와 증경회장, 교수, 기관장, 그리고 동창회 임원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모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신년모임은 총무 신주현(01) 동창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선교부장 유병국(75) 동창의



간호대학 2016년 신년 모임

기도로 시작하였다. 이어 김진향 동창회장의 2015년 동창회 활동보고와 김미영(84) 학부장의 2015년 간호학부 활동보고, 그리고 목동의료원 간호부원장 변은경(83) 동창의 마곡의료원 착공식을 비롯한 목동의료원 활동보고가 있었다. 지난 2015년 간호대학 및 동창회는 이화 간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 기반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헬렌관 재건축 기금 모금 활동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간호대학의 숙원사업인 간호학부에서 간호대학으로의 복원이라는 감격스러운 성과를 이루어낸 뜻 깊은 해였다.

한편, 현 대한간호협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옥수(80) 동창도 이날 참석하여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간호계의 지난 2015년의 활동 추진 성과와 올해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계획을 소개하였다. 하영수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이날 참석한 명예(원로)교수 7명과 김미경(66) 증경회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현직 교수들과 기관장, 동창회장 및 임원들에게 새해에도 이화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약학대학

회장 __ 박하영(약학 77)

정기임원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행사

2015년 12월 2일(수)에 루안에서 동창회 임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임원회가 열렸다. 책임감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는 회장 인사와 함께 새 임원 소개가 있었다.

제 52회 정기총회 결산보고 및 평가가 있었고, 이강희(약학 66) 주홍장학회 운영위원장과 정용희(약학 75) 약연후원회 운영위원장의 선출이 있었다.

2016년 1월 6일(수)에 리버사이드호텔에서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 및 신년하례회가 열렸다. 신



신입 동창 환영회에 참석한 약학대학 동창들

입 임원들의 특송과 함께 회장인사 및 각 부 활동보고를 했다. 이윤실(약학 85) 부학장이 학교소식과 함께 70주년 약대 발전기금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약대 건축기금 및 모금 현황보고에서는 현재 16 억 7,000여만 원이 모아졌고, 동창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하였다. 새해를 맞이하여 선배들의 덕담이 이어졌고 모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2월 12일(금) ECC 극장에서 동창 31명, 이승진 학장과 신입 동창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 동창 환영회’가 열렸다. 졸업을 축하하며 동창회 입회를 축하하는 회장의 환영사 및 동창회 임원 소개가 있었고, 이화동산에서 학업을 연마하고 꿈을 키워온 4년 을 아름답게 되새기며 이약 동창으로서 힘찬 출발을 다짐하자는 이승진 학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신입 동창들의 입회선서와 입회비 전달식에 이어 새내기로 사회에 진출하는 후배들을 위해 SBS 김정택 예술단장의 강연과 함께 희망음악회를 하며 유쾌하고 뜻 깊은 시간을 모두 함께 나눴다.

생활환경대학

회장__임정희(가관 79)

아령전 개최

아령회에서는 2015년 12월 16일(수)부터 22일(화)

까지 화가 및 작가로 활동하는 동창들의 작품을 모아 인사동 희수갤러리에서 아령전을 개최하였다. 3개 과 17명의 동창들이 회화, 사진, 의상 부문에서 총 30 여 점을 출품하였다.

오프닝 행사에는 김숙희, 임숙자, 문숙재 전 교수 가 참석하여 사제지간, 동창 간 예술로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전시 기간 중 이병림, 김미경 전 교수와 동창은 물론 많은 외부 인사들이 관람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적인 전시를 마쳤다. 또한 2년 전 결성된 아령사진동호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작업하는 문숙재 전 교수의 작품이 완판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생활환경대학(가정대학) 동창회 아령회에서는 동창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아령전에 작품을 출품한 동창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졸업연도 순).

문숙재(가정 68), 김안수(식영 69), 손영순(가관 69), 이봉화(가관 69), 이재희(가관 69), 김영신(가관 71), 최수주(식영 75), 남은주(가관 81), 이옥희(의직 81), 손정미(식영 82), 장윤경(식영 82), 홍미선(식영 82), 유정희(의직 83), 김연경(가관 84), 김정수(의직 84), 유지수(의직 92), 김명희(의직 97).



생활환경대학 동창 작가들이 모여 개최한 아령전 전시회장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게재

영어영문학과

회장 이정숙(77)

2016년 신년 하례식

2016년 2월 26일(금) 잠원동 JS가든에서 영학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교수, 고문, 임원을 포함 19명이 모여 덕담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에는 이승아(91) 교수가 영문과의 BK 21 플러스 사업 선정을 포함한 발전 소식을 알려주어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하례식 후 임원회의를 통해 2016년 춘계강좌는 5월 17일(화)에 원광대 주선희 교수를 초청해서 인상학 관련 주제로 열기로 하였다.



신년 하례식으로 한 해를 시작한 영문과 동창들

사학과

회장 한혜련(75)

신년 하례를 겸한 간사회 개최

2015년 12월 17일(목) 티원에서 2015년을 마무리하는 간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열린

‘이화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회장단과 간사들의 보고와 더불어 2015학년도 2학기 사학과 동창회 장학금 지급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고문들과 간사들이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선후배 간의 유대를 돋독히 하였다.

2016년 2월 25일(목) 신년 하례를 겸한 간사회가 티원에서 열렸다. 선배들의 덕담을 들으면서 새로운 한 해, 활발히 활동할 것을 다짐하였다.

문헌정보학과

회장 정연경(85)

이화사서포럼 임원회의 개최

1월 16일(토) 모교 라운지오에서 이화사서포럼 임원회의를 진행하고, 문헌정보학 발전을 위해 재직 동창들의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였다. 이화사서포럼은 2012년 7월에 발족한 전문직 동창 클럽이다. 2월 19일(금)부터 20일(일)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엠티를 가졌으며, 3월 26일(토) 이화·삼성교육



이화사서포럼 임원회의를 개최한 문헌정보학과 동창들

문화관 8층 대회의실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작곡과

회장__남주희(88)

동창회 발족식

2016년 1월 21일(목) 오전 11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작곡과 동창회 발족식을 하였다.

1970년대부터 2007년까지 40년을 아우르는 학번의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했다. 남주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1부에 이어 2부에는 동창들이 한 명씩 무대로 나와 자신의 근황을 소개했다. 문성희(80) 동창은 “본인이 강사로 재직 중에 가르치던 제자들을 비롯해 선후배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동창 모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주희 회장은 “작곡과 동창회를 통해 각계 각곳에서 활약하는 선배들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 초년 졸업생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학교를 빛냄과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작곡과 동창회 발족식은 선후배 간의 유대를 돈독히 다짐과 동시에 열심히 활동하는 동창들을 통해 인생에 대한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동창회를 발족한 작곡과 동창들

종교음악과

회장__최은희(81)

대만 초청으로 연주여행 다녀와

종교음악과 동창합창단 ‘이화 그레이스 콰이어’(지휘: 김상희, 종음 96)가 지난 2월 19일(금)부터 22일(월)까지 대만 인애당 교회와 OR TV(Overseas Radio & TV) 초청으로 연주여행을 다녀왔다.

2월 21일(일)과 22일(월) 양일간 있었던 세 차례의 연주에서 총 10곡의 곡을 불렀으며, 김축복(94), 한정원(87) 동창의 간증 순서와 바이올리니스트 김내리(관현 93) 동창, 오르가ニ스트 양윤정(96) 동창의 연주도 함께하여 더욱 풍성한 시간이었다. 이날 이화 그레이스 콰이어는 한국과 대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아리랑-모리화(초연)〉, 〈우후채홍(雨後彩虹, 여성3부 초연)〉 등을 불러 기립박수를 받았다. 연주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모리화〉를 한 번 더 불러주기를 청하여, 앵콜곡으로 재차 연주하기도 하였다. 대만 교회와 한국 교회의 친선을 도모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대만 인애당교회에서 공연한 이화 그레이스 콰이어

조소과

회장__이선화(81)

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

2015년 12월 18일(금) 화동모티집에서 20명의 운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본 조소과 동창회

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9월 17일(목) 총동창회 바자회에 드페이블랙 대표 이혜경(79) 동창이 참가한 소식과 2015 이화조각회 정기전에서 작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지구촌국제학교에 후원금으로 전달한 일, 모교 조형예술관과 이화아트센터에서 열린 학부 4학년 졸업작품전에 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축하해주며 이화조각회 신입 회원을 선출한 것 등 조소과의 발전을 이루는 여러 행사와 훈훈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2016년도 동창회 및 조각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안건들을 주제로 토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조소과 동창들로 이루어진 조각그룹 너와의 ‘너와 겨울’ 전이 2015년 12월 2일(수)부터 12월 16일(수)까지 갤러리 미에서 열렸다. 참여한 동창 작가는 다음과 같다(졸업연도 순). 고혜숙(77), 나진숙(84), 정수안(84), 조미연(84), 지명순(87), 호해란(88), 김선영(89), 김정연(89), 차종례(92), 조은희(94), 강선구(99), 이민영(04).

섬유예술과

회장_봉지희(85)

이화섬유조형회 30주년전 개최

섬유예술과 동창들로 이루어진 ‘이화섬유조형회’가 30주년을 맞이하여, 이화아트센터에서 2015년 12월 8일(화)부터 12일(토)까지 ‘이화섬유조형회 30주년전’을 개최하였다. 장영란(77) 명예회장, 봉



이화섬유조형회 30주년전에 참석한 섬유예술과 동창들

지희 현 회장을 비롯하여 교수로 재직 중인 동창, 작가로 활약하는 동창 등 각계에서 활동 중인 총 34명의 동창이 참여하였고, 엄정윤 교수 외 전 교수들, 이효범(61), 김혜순(66), 오복환(66), 윤귀영(71) 역대 동창회장 선배들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전시는 많은 관람객들과 축하객들의 성원 속에 성황리에 이어졌고, 전시 마지막날 ‘이화섬유조형회’는 전경화(89) 동창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생활미술과

회장_윤자윤(85)

송년모임 겸 총회 개최

2015년 12월 18일(금)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송년 모임 겸 총회를 가졌다. 1963년 졸업한 대선배부터 2016년 졸업하는 새내기 동창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다. 대선배의 강의부터 현재 산업디자인 전공 박사 과정을 밟으며 후학들을 위해 모교에서 강의 중인 동창의 디자인사 강의도 있었고, 신구 회장단의



송년모임 겸 총회를 개최한 생활미술과 동창들

이취임식도 있었다. 맛난 식사와 경품 추첨 행사로 선후배 간에 돈독함을 쌓을 수 있었다.

한편 조형대학 디자인전공 동창 출신 59명으로 구성된 전시그룹 비주얼메시지가 2015년 12월 23일(수)부터 29일(화)까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33회 정기 전시회를 열었다.



총회를 개최한 가정관리학과 동창회

특수교육과

회장_한은주(79)

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2016년 1월 21일(목) ECC 이삼봉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칙제정, 감사패 전달, 식사와 대화, 친목, 기념촬영 등으로 선후배 간, 동기 간 우애를 깊이 새기었다.



100여 명의 특교과 동창들이 꽃이 되어 기념촬영을 하였다

가정관리학과

회장_김상희(81)

이가회 총회 개최

2월 24일(수)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수담 한정식에서 가정관리학과 동창회 이가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 18명의 동창이 모여 전년도 활동보고와 회계보고를 진행하였고, 신임 회장 추대와 인사가 있었다. 2016년도 활동계획과 임원진 구성은 신임 회장이 차후 논의하기로 하고 총회를 종료하였다.

식품영양학과

회장_정조인(83)

창립 50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개최

식품영양학과는 2015년으로 창립 50주년(가정과 86주년)이 됨을 기념하여, 2016년 2월 23일(화) 오후 6시에 ECC 이삼봉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를 가졌다. 가정과와 식품영양학과 동창들, 아령회 임원과 김숙희 명예교수, 서선희 학과장 등 전현직 교수를 포함하여 220명의 동창들이 모여서 따뜻한 만남의 장을 가졌다. 이 행사에서 박영일 부총장이 축사와 기금을 전달했으며,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 학장도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나간 50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소속되는 신산업융합대학 내의 식품영양학과의 도약과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학기부터 식품영양학과 동창회는 최수주 회장에서 정조인 회장단으로 연결되며, 여러 소규모 행사 등으로 지속적인 식영인의 끈을 활발히 이어갈 것이다.



학과 창립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식품영양학과 동창들

지회 소식

가나다순으로 게재

남가주(LA) 지회

회장__장경해(피아노 75)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

‘2015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2015년 12월 13일(일) 10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LA에 위치한 Wilshire Country Club에서 열렸다. 이보경(생미 80)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정기총회는 목사 김희숙(약학 62) 동창의 기도로 시작되어, 올해 행사보고와 회계보고로 이어졌다. 이어 2016년도 신임 이사장으로 장계원(도서 76), 신임 동창회 회장으로 장경해 동창의 인준이 있었다. 그 뒤 동창자녀 3명에게 각각 1,000달러씩 총 3,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남가주 지회의 정기총회와 송년의 밤 행사

2부 순서 ‘이화인의 밤’ 파티에서는 한나리(체육 92) 동창의 사회로 이대 남가주지회 동문합창단의 합창, 윤승경(관현 99) 동창의 바이올린 연주, 이애숙(간호 76) 동창팀의 고전무용, 성기순(섬예 69) 동창 부부의 볼룸댄스, 동창회 임원진들의 <행복합니다> 플래쉬몹 댄스 공연이 있었다.

이대 남가주지회 동문합창단은 총무 박신화(기독 70), 지휘자 안정화(대학원 98), 반주자 주희정(피아노 08) 동창, 운영위원장 박화자(간호 66) 동창과 운영위원 고은주(영문 61), 송은섭(정외 57), 송정현(교육 57), 안성옥(가정 61) 동창이 수고를 하고 있으며, ‘동문합창단 12주년의 축제행사’로 130주년 모교 기념행사에 30여 명이 참석하여 합창을 할 예정이다. 합창단원 중에 가장 연장자인 90세 김진현(체육 49) 동창은 후배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멘토가 되고 있다.

한편 조형대학을 졸업한 남가주 동창들의 모임인 ‘이대 남가주 녹미회(회장 이보경)’는 지난 1월 9일(토)부터 2월 13일(토)까지 Muzeo Carnegie Museum, Anaheim의 ‘Verdant Beauty’에서 제4회 녹미전을 열었다. 모두 26명의 작가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내었는데, 한국에서 8명이 참가하였고, 로컬 작가 6명이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참가비는 ‘녹미전과 아프리카 말라위 여성 물지게 후원 사업’에 기부하여, 200명의 여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뉴질랜드 지회

회장__이보아(종음 85)

신임 회장단 선출

새 회장단으로 회장 이보아 동창, 부회장 윤희자 (교공 79) 동창을 선출하고, 3월 8일(화) 형진경(조소 84) 동창의 집에서 2016년 첫 동창회를 열었다. 하버뷰가 근사한 동창의 집에서 23명의 동창이 모여 더 위를 이긴 이야기부터 시작해 손주 본소식, 새해 계획 등 반가운 소식들을 풀어 놓으며 힐링 바이러스 웃음 보따리를 나누었다. 3년째 돋고 있는 결식자 세탁 후원비와 '아나바다'를 위해 기꺼이 물품을 도네이션 해주는 손길에 더하여, 동창이 준비한 맛깔스런 잡채와 밤묵 무침, 변함없이 제공해주는 Queen Chef의 웰빙비빔밥과 겉절이, 녹두전으로 풍성하고 푸짐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형진경 동창의 집에 모인 뉴질랜드 지회 동창들



송년회를 개최한 대구 지회

선배들을 보면서 '이화의 품격'과 깊은 연륜의 멋을 느낄 수 있었다. 동창들은 초에 불을 붙이고 눈을 감은 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시 맞게 되는 새로운 시간에 감사하며 각자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었다. 이 날은 김미(성악 90) 동창의 딸이자, 얼마 전 독일 하겐에서 열린 모차르트 국제콩쿠르에서 성악 부문 1위를 차지한 강혜인 양과 피아니스트 박재홍 군이 참석해 멋진 공연으로 값진 시간을 함께하였다.

한편 이명숙(약학 78) 동창은 대백프리자 프라임 홀에서 환갑 기념 솔로 음악회를 가졌다. 이 동창은 사위가 작곡하고 시인이 가사를 붙인 곡 <은빛 사랑>을 멋들어지게 불러 함께 자리한 이들의 환호와 부러움을 받았다. 대구의 이화는 그렇게 2015년을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2016년을 시작했다. 화려함보다는 멋있음을 우선으로 여기는 대구 지회의 동창들은 어느 영화에서 유행했던 대사로 모임을 마무리하며 웃음을 나눈다.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대구 지회

회장__최장숙(영문 81)

겨울 행사의 백미, 송년회 개최

2015년 12월 4일(금), 고희와 회갑을 맞은 선배들을 위한 축하 행사를 겸하는 것이 어느덧 대구 지회의 전통이 된 송년회에서 올해도 10명의 선배들이 축하를 받았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행사장에 나타난

멜버른 지회

회장__박성혜(기독 95)

2015년 송년모임 가져

2015년 11월 23일(월) 차이나타운 내에 있는 'Sichuan House' 레스토랑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성미령(법학 75) 동창의 손주 탄생을 축하하고, 재취



송년 모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 멤버들 지회

업에 성공한 신은미(사회 99) 동창을 축하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미네소타 지회

회장__김성숙(사회 85)

태권 댄스로 심신이 건강해지는 시간

2015년 12월 11일(금) 리스챔피언 태권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김정은(체육 90) 동창의 도장에서 모임이 있었다. 동창들은 편안한 복장으로 김 동창의 지도에 따라 스트레칭과 태권 댄스를 따라하며 즐거워하였다. 오랜만에 그레이스 리(의학 45 입학) 동창과 차정예(교심 77) 동창이 참석하였고, 새로 홍선화(약학 66) 동창이 모임에 나오게 되어 무척 반가웠다.



태권 댄스로 즐거운 시간을 가진 미네소타 지회

운동 후에 근처 중국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선후 배 간에 담소를 나눈 뒤에 다음 만남을 기약하였다.

밴쿠버 지회

회장__김희연(가관 71)

설과 대보름을 기리는 모임을 가져

2015년 7월 18일(토) 밴쿠버 퀸 엘리사벳 공원에서 동창 가족들의 야유회가 있었다. 화창한 여름 날씨에 쌈채소, 해물 부침개 및 갈비살 바비큐를 나누고, 조경숙(생미 79) 동창의 기타 반주로 교가를 비롯한 흥겨운 노래를 함께 불렀다.



설을 기념하는 모임을 가진 밴쿠버 지회

2015년 12월 6일(일)에는 송년 모임을 밴쿠버 골프 클럽에서 부부 동반으로 가졌다. 참석한 동창들은 2015년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뻐하며, 2016년에도 좋은 일들이 많기를 기원하였다.

2월 20일(토)에는 설과 대보름을 기리는 모임을 가졌다. 또한 금년에 팔순을 맞는 여정구(법학 59), 이윤재(약학 59), 조남순(법학 60) 세 동창을 위한 잔치를 겸하여, 아름다운 난화분으로 이들을 축하했다.

올해 임원으로는 부회장에 최경숙(교육 73) 동창, 총무에 이혜숙(보교 85) 동창, 회계에 박유경(도예 89) 동창이 맡아 봉사하게 되었다.

보스턴 지회

회장_박순혜(국문 73)

새 임원 선출

2월 27일(토) 렉싱턴에 위치한 ‘다빈’ 레스토랑에서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12명의 동창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그동안 회장으로 수고한 이문희(작곡 77) 동창 후임으로 박순혜 동창이 선출되었고, 이사장에는 김홍혜(가정 64) 동창이 선출되었다. 해외 동창 맥만불 모금운동 동북부 책임자로 일하는 김경애(의학 70) 동창이 모금운동 현황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고,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새 임원을 선출한 보스턴 지회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_제갈숙경(관현 79)

정기모임 및 연말 파티

2015년 12월 5일(토) 포스트시티에 위치한 크라운 프라자 호텔에서 약 50여 명의 동창들과 함께 2015년 마지막 정기모임 및 연말파티를 가졌다. 특별히 이날 송년 모임에는 동창회 합창단의 공연과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텔런트 쇼 1등을 수상한 뮤지컬 <팥쥐가 기가 막혀>의 앵콜 공연을 선보였다.



북가주 지회 연말 파티에 참석한 동창들

북가주 동창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새로 건립하는 마곡병원과 신축 기숙사 건립기금으로 7만 달러를 모금했다. 동창 간의 친목도모와 지역 성장을 위한 상호 교류, 모교 발전에 협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북가주 동창회는 1964년에 시작되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시드니 지회

회장_김봉희(서양 74)

2016년 첫 모임

2월 13일(토) 12시 김봉희 동창 집에서 올해 첫 모임을 가졌다. 모두 24명의 동창이 모여 서로 안부를



김봉희 동창 집에서 모임을 가진 시드니 지회

묻고 맛있는 점심을 들며 담소를 나눴다. 이번 모임에서 조경화(사생 79) 동창이 New South Wales 주립 Art Gallery의 한국어 작품 해설 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하며 동창 및 가족의 침관을 권유하였고, 다음 모임은 조동창 안내로 NSW Art Gallery에서 만나 직접 작품 감상을 하기로 하였다. 시드니는 올해 늦여위가 기승을 부려 아직도 한여름 기분이다.

싱가포르 지회

회장__조혜숙(영문 89)

역대 최다 52명 참석

모교 최경희 총장의 싱가포르 방문 등으로 의미가 남달랐던 2015년을 마무리하는 연말 파티가 2015년 12월 1일(화)에 Sentosa Golf Club에서 있었다. 조혜숙 회장의 축사 및 박정희(불어교육 76) 동창의 건배사로 시작된 연말 파티는 52명이라는 역대 최다 인원이 참석하여 더욱 의미 있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모든 동창이 흰색 옷을 입었고, 연회장의 모든 장식도 흰색으로 통일하여 환상적인 분

위기를 연출했다. 파티 시작 전 동창들의 재학시절 사진을 모아 전시해 놓은 보드를 구경하며 마음에 드는 사진에 스티커를 붙여 베스트 포토를 선정하기도 했다. ‘응답하라, 이화여대’라는 이름으로 전시된 사진들을 통해 1957년부터 2014년에 걸친 50여 년의 모교 캠퍼스의 변화상을 보며 추억을 더듬었다.

박영신(간호 96) 동창은 화려한 밸리댄스 공연으로 모든 동창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으며, 박춘화(경영 86) 동창의 멋진 라틴댄스 공연 후에 이어진 ‘다같이 라틴댄스 배워보기’ 시간도 흥겨웠다.

한 해 동안 아껴 쓴 회비와 여러 동창들의 도네이션로 마련되어지는 연말 파티는 재주 많고 열정 있는 동창들의 아이디어와 기획력으로 더욱 극대화된 결과를 만들어 동창들 간의 결속력을 더할 수 있었다. 크고 작은 행사들을 준비하며 우리 이화인들이 얼마나 자기 주도적이며 리더십과 능력이 뛰어난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자랑스러웠다.

애틀랜타 지회

회장__장명옥(영문 81)

2016년 정기총회에서 임원 인사

2015년 12월 13일(일) 송년 모임 겸 10월 총회 뒤풀이 모임을 Breakers Restaurant에서 가졌다. 총회에서 합창을 한 남편들, 성정순(체육 49) 고문, 정호문(불문 62) 동창과 새로 나온 서정주(교공 75), 이인애(수학 93), 김선진(종음 94) 동창, 오랜만에 서울에서 방문한 김(황)정자(신방 66) 동창 등 60여 동창이 참석하였다. 성인자(사생 68) 동창이 부군의 장례식에 꽃을 보내준 데에 감사 인사를 하였고, 2016년 이화동창수첩과 부회장 김경원(가관 81) 동창이 제공한 캘린더를 나누며 모임을 마쳤다.

2016년 1월 신년모임은 총무 김영례(교심 79) 동창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연말 파티를 개최한 싱가포르 지회



애틀랜타 지회의 2016년 정기총회

의 덕담으로 시작하여 성정순 고문의 기도에 이어 그 간 회장으로 수고한 김정희(약학 79) 동창의 인사가 있었다. 김동창은 앞으로 1년간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으로 봉사하게 됨을 감사하고, 동창회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새로 나온 김성숙(교공 92) 동창의 환영 인사와 1월 생일을 맞은 송신홍(의학 53), 조성숙(가정 64), 김경원 동창의 생일 축하와 선물 증정이 있었고, 작년에 생일 선물을 못 받은 동창에게도 축하의 인사와 함께 선물을 증정하였다.

2월 모임은 2016년 정기총회로, 서기 최인옥(체육 87) 동창의 2015년 총회서기록 낭독, 회계 최정원(식영 85) 동창의 2015년 결산보고, 감사 장석란(서양 68) 동창의 2015년 감사보고에 이어 신구 임원 인사가 있었다. 2016년도 새 임원단은 회장 장명옥, 부회장 김경원, 총무 김영례, 회계 김태원(피아노 86), 서기 최인옥 동창이며, 2016년도 이사회 이사장에 김아자(의학 63), 총무에 조성숙, 회계에 이원옥(수학 69), 서기에 조수현(수학 76) 동창이 선임되었다.

그동안 수고한 전 회장 김정희, 전 이사장 정문자(의학 66), 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무 조수현, 전 북미주지회연합회 서기 조성숙, 전 북미주지회연합회 회계

이원옥 동창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2월 생일인 이혜경(영문 65), 장명옥, 장석란, 홍혜진(정외 93) 동창의 축하와 신입 회원 이미정(교심 85), 김선진 동창의 환영 인사와 선물 증정이 있었다. 각 부소식으로 음악부 부장 이혜선(피아노 64) 동창의 합창단에 대한 안내와 체육부(골프회) 부장 차희숙(체육 77) 동창의 이화골프모임 안내가 있었다. 선교부장에는 김순희(법학 66) 동창이 봉사하게 되었다.

울산 지회

회장 __ 최의숙(의학 77)

동창회 기금 모금을 위한 옥션 개최

2015년 12월 17일(목) 12시에 울산 롯데호텔 폐난 술라 뷔페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약 3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하였고 선후배 간의 우애를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015년을 잘 마무리하자”는 최의숙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매자(의학 77) 동창의 통일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맛있는 점심 식사 후 동창회 기금 모금을 위한 옥션을 안진희(관현 76) 부회장이 재치있는 멘트로 진행하였다. 2015년을 뒤로하고 새해의 만남을 기약하며 모임을 마쳤다.



송년모임에서 옥션 개최한 울산 지회

워싱턴DC 지회

회장__김성혜(보교 88)

연말 파티 성황리에 마쳐

2015년 12월 18일(금) Marriott Hotel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 후 최유정(무용 96) 동창의 진행으로 80명이 넘는 동창과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한 연말파티를 하였으며, 옥션을 통해 동창회 기금을 마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친목과 세대를 넘어 화합하는 이회인의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부터는 새로운 회장 김성혜 동창을 비롯한 새 임원단이 구성되어 올해의 목표와 계획을 구상하였으며, 특히 봉사와 지역사회 참여에 중점을 두어 사회부장 서혜경(정외 90) 동창이 계획한 두 번의 봉사활동을 4월과 9월에 Catherine's Shelter에서 할 예정이다. 1월 11일(월)에 열린 연례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으로 이명지(영문 67) 동창이, 이사회계로 윤향근(교육 82) 동창이 선출되었고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올해 워싱턴DC 지회는 병중이거나 치료 중인 동창들을 방문하는 Sunshine Committee를 새롭게 발족하여 Maryland Committee의 조은희(경제 91) 동

창과 Virginia Committee 김주(생미 86), 고승현(통계 92) 동창이 각 주에 거주하고 있는 투병 중인 동창들을 방문하였다.

포틀랜드 지회

회장__김미진(도예 79)

신년 하례 모임

1월에 신년 하례 모임으로 오랜만에 동창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은 한명숙(영문 56 입학) 동창과 서울에서 교환교수로 온 유수옥(유교 77) 동창이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모교에서 보내온 소식지와 빨간 수첩을 모두 손에 쥐고 잠시 향수에 젖었으며, 최근 교정의 변모를 담은 사진을 보며 예전의 교정을 추억하였다. 오랜만의 만남이다 보니 그동안의 이야기로 화제의 꽃을 피우느라 3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포틀랜드 지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숨은 동창을 찾는데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으며, 현재 병중인 동창과 동창 가족들의 대소사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할 것이며, 동창 방문과 연락을 자주 하기로 하였다.

다음 모임으로는 6월 초에 근교로 하이킹을 계획하고, 100세 시대에 맞춰 건강하게 살아가자고 다짐하



총회와 연말 파티를 개최한 워싱턴DC 지회

면서 가능하면 모두 참석하기를 바란다는 회장의 말에 모두 입을 모아 “네” 하고 대답하였다.



포틀랜드 지회의 신년 하례 모임

홍콩 지회

회장__정도경(사복 81)

떡국과 윷놀이로 친목을 다지는 시간

1월 14일(목) 점심에 방해자(교육 66) 동창의 초대로 방 동창의 집에서 1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동창들은 방 동창이 손수 정성껏 준비한 새해맞이 떡국을 먹고, 전통 윷놀이도 즐기며 동창들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한국으로 귀국하는 정경화(관현 90) 동창을 위한 환송파티가 있었다. 정도경 회장은 홍콩



전통 윷놀이를 즐긴 홍콩 지회

동창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단체 환송카드와 선물을 전달했다.

휴스턴 지회

회장__김명옥(경영 75)

16년째 어르신들께 떡만둣국 대접해

2015년 12월 16일(수) 이영일(의직 72) 동창의 집에서 연말 파티를 가졌다. 이 동창이 준비한 랩스터와 스시, 그리고 여러 동창들이 준비한 음식을 즐기며 한 해를 돌아보았으며, 또 2016년에 차를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2016년 1월 18일(월) 김성혜(도예 84) 동창의 집에서 새해의 첫 모임으로 떡국 잔치를 했다. 김 동창이 마련한 환상의 들깨 떡국, 유민정(생미 87) 동창의 영양 덩어리 녹두 빈대떡, 주숙현(의학 51입학) 동창의 식혜 등을 즐기며 단합하였고, 올해 예정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를 드렸다.

2월 9일(화) 설을 맞이하여 떡만둣국과 동창들이 손수 마련한 여러 가지 음식을 휴스턴 한인 노인회 어르신들께 대접하였다. 이 행사는 16년째 연례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이영일 동창의 집에서 송년회를 한 휴스턴 지회

김양식(영문 54) 동창

3월 20일(일) 오후 3시, 서울 안국동 W stage에서 김양식 동창의 시낭송과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행사가 열렸다.



김양식 동창

김남정(교육 57) 동창

김남정 동창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15년 자원봉사왕으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11월 23일(월) 열린 제9회 전국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 기념식에서 자원봉사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김남정 동창

김은영(생미 64) 동창

종로문화재단은 2015년 11월 7일(토)부터 22일(일)까지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에서 ‘노리개와 매듭’ 기획전시전을 열었다. 이 전시에는 무형문화재 13호 매듭장보유자 김은영 동창과 26명 작가의 노리개와 매듭 작품이 전시되었다.



김은영 동창

임숙자(가정 64) 동창

임숙자 동창이 2월 22일(월) 3·1 여성동지회 제24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 동창은 모교 생활환경대학장, 가정대 의류직물학과 교수, 한국의류학회장, 복식문화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숙자 동창

방명혜(기악 67)·계명선(피아노 85) 동창

2월 11일(목) 태국 부라파 대학에서 투 피아노 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연주회에서 방명혜 동창은 계명선



방명혜 동창



계명선 동창

동창과 함께 이영자(작곡 54) 교수의 〈Variations Fantasie Pour Deux Pianos〉를 연주하였다.

김정수(무용 70) 동창

김정수 동창이 2015년 12월 31일(목)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장을 받았다. 김 동창은 2015년 한국무용협회 주관 무용예술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정수 동창

최민숙(독문 71) 동창

모교 독문과 명예교수인 최민숙 동창은 2015년 12월 17일(목) 한국공연예술원 산하 샤마니카연구회 초청으로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미메시스: 현실 모방인가, 현실 창조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민숙 동창

강승애(서양 72) 동창

한국여류화가협회 18대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강 동창은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강승애 동창

정미조(서양 72) 동창

정미조 동창이 2월 24일(수) 새 앨범 <37년>을 발표하며 37년 만에 가수로 복귀하였다. 정 동창은 1979년 가요계를 떠난 이후 화가의 길을 걸으며 수원대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해 오다 2014년 경년 퇴임했다.



정미조 동창

박일순(조소 74) 동창

1월 16일(토)부터 2월 14일(일)까지 용인시 ICAM 이영미술관에서 정년 기념 사제동행전을 열었다. 박 동창은 2015년 12월 10일(목) 정년퇴임을 앞두고 장학금 1억 원을 모교에 기부한 바 있다.



박일순 동창

장필화(영문 74) 동창

모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 장필화 동창이 필리핀 정부 고등교육위원회(Th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CHED)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지난 1월 27일(수)부터 28일(목)까지 필리핀 파사이 시티에서 필리핀 정부 고등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제4차 젠더와 고등교육 서밋’에 초청받은 장 동창은 지난 20여 년간 모교 아시아여성학센터를 통해 아시아 여성학 발전과 제도화를 위한 아시아 학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장필화 동창

김명숙(무용 76) 동창

김명숙 동창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늘휘무용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으로 <시간의 공간>



김명숙 동창

과 <모래·그림>을 3월 26일(토), 27일(일) LG아트센터 무대에 올렸다.

강순열(가관 77) 동창

2월 17일(수)부터 4월 1일(금)까지 로마 LA NUOVA PESA 현대아트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를 하였다.



강순열 동창

고혜숙(조소 77)·이선화(조소 81)·나진숙(조소 84)·조미연(조소 84)·박신정(조소 85)·김선영(조소 89) 제4회 한일미술·공예교류전에 참가하여 2월 16일(화)부터 27일(토)까지 강릉시립미술관에서, 3월 8일(화)부터 12일(토)까지 모교 조형예술대학 이화아트센터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김지현(교공 77) 동창

김지현 동창의 두 번째 개인전 ‘그곳에’가 4월 13일(수)부터 19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가나아트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픈초대는 4월 13일(수) 오후 5시이다.



김지현 동창

조성남(사회 77) 동창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조성남 동창이 제58대 한국사회학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사회학회 60년 역사상 모교 사회학과(1958년 설립) 출신으로는 최초의 한국사회학회장이다. 이화리더십개발원장 보직을 겸하고 있는 조 동창은 모교 국제교육원장, 사회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전국여교수연합회 회장, 평화의료재단 총재 등을 역임하며 교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조성남 동창

신혜원(의학 78) 동창

2015년 10월 24일(토)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존타 32지구(한국) 제5차 총회에서 제6기 총재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7월부터 2년간이다.



신혜원 동창

지옥정(유교 78) 동창

한국교통대 교수로 재직 중인 지옥정 동창이 청주 YWCA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옥정 동창

김은미(사회 81) 동창

모교 국제대학원 원장 김은미 동창이 QS Asia의 초청으로 2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QS in Conversation'에 모교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김은미 동창



임선영 동창

임선영(의학 82) 동창

2015년 12월 19일(토) 정부서울 종합청사에서 열린 '2015 국민주

천포상 수여식'에서 30년간 여성 노숙인과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무료 진료를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조선수 동창

조선수(제약 83) 동창

조선수 동창의 소설 「제레나폴리스」가 201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되었다.

차정인(생미 83), 박혜선(생미 96), 김태미(대학원 92) 동창 2월 15일(월)부터 29일(월)까지 여니 갤러리에서 '자기만의 방, 셋'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나진숙 (조소 84) 동창

2월 18일(목)부터 3월 26일(토)까지 갤러리 아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지호 동창

이지호(서양 84) 동창

이지호 동창이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연임되어 앞으로 1년 동안 고암재단을 계속 이끌게 되었다.

서울 지역 구 약사회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 이화동창들

전영옥(제약 76) 동창, 성북구 / 박승현(제약 81) 동창, 송파구 / 한동주(약학 81) 동창, 양천구

조영희(약학 84) 동창, 광진구 / 이명희(약학 85) 동창, 금천구 / 장은선(약학 85) 동창, 서대문구

신성주(약학 86) 동창, 강남구



전영옥 동창



박승현 동창



한동주 동창



조영희 동창



이명희 동창



장은선 동창



신성주 동창

조미연(조소 84) 동창

2015년 12월 25일(금)부터 29일(화)까지 용인문화예술원 전시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양하(식영 85) 동창

모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양하 동창이 식품영양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Journal of Medicinal Food》의 편집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김양하 동창

정정엽(서양 85) 동창

1월 21일(목)부터 2월 27일(토) 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스케이프에서 12번째 개인전 ‘벌레’를 열었다.



정정엽 동창

남연숙(도예 86) 동창

㈔Visual Arts 대표가 되었다. 또한 3월에 제11회 ㈔여성 미술 전시회를 낫산 인피티니 아트갤러리에서 가졌으며, 차모로 달을 기념하는 행사에 미술 작품을 전시하였다.



남연숙 동창

박해미(성악 86) 동창

무대와 브라운관을 넘나드는 배우 박해미 동창이 2월 3일(수) 첫 싱글앨범 〈통(通)〉을 발매했다.



박해미 동창

박혜경(사생 86) 동창

박혜경 동창이 여성신문이 선정하는 ‘2016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하였다. 박 동창은 강원도여성기족연구원 연



박혜경 동창

구개발부장으로, 성평등 정책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원숙연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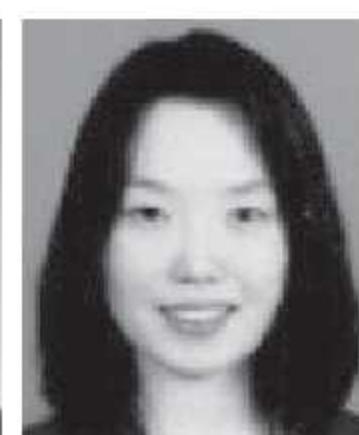
원숙연(행정 86) 동창

1월 8일(금)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임기는 2017년 12월 10일(일)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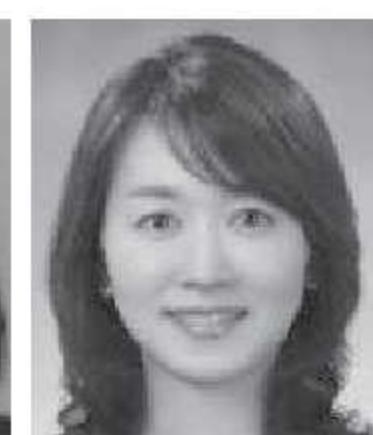
심소희(중문 87)·김수연(행정 95), 이지은(중문 03) 동창
모교에서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심소희 동창,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수연 동창, 통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은 동창이 한국연구재단 ‘2015년 인문사회분야 우수논문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심소희 동창



김수연 동창



이지은 동창

지명순(조소 87) 동창

2015년 12월 2일(수)부터 16일(수)까지 갤러리 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경미(의학 88) 동창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병리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경미 동창이 제15회 보령암학술상을 받았다. 김 동창은 유전체에 기반한 위암 개인 맞춤치료를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경미 동창

남주희(작곡 88) 동창

1월 28일(목) 조선 에듀케이션이 주최하고 조선일보

가 후원하는 ‘2016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에 남주희실용음악학원이 선정되었다. 또한 남동창은 최근 유행하는 신곡들을 모아 쉽고 재미있게 편곡한『신나는 재즈소곡집』을 출간하였다.



남주희 동창

김선영(조소 89) 동창

1월 30일(토)부터 2월 26일(금)까지 사랑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박혜숙(의학 91) 동창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박혜숙 동창이 세이프키즈코리아 신임 이사에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박혜숙 동창

장정아(조소 91) 동창

4월 6일(수)부터 19(화)까지 서울 Fine Art New York Gallery Seoul에서 ‘In the world, But beyond the world’라는 주제로 초대 개인전을 연다.



장정아 동창

김종숙(경제 92) 동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장 김종숙 동창이 신임 대통령여성가족비서관에 임명되었다.



김종숙 동창

심기남(의학 92)·송현주(의학 00)·장지영(의학 10) 동창

심기남 동창이 2015년 12월 12일(토)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4차 대한상부위장관 혈리코박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심 동창은 제주



심기남 동창

대학교병원 송현주 동창과 함께 연구한 ‘2013년도 개정된 한국인 혈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진단 및 치료 임상 진료지침에 대한 학회 회원 인지도 웹 설문조사’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또한 심 동창은 이대목동병원 장지영(의학 10) 동창과 함께 ‘보르만 분류 4형 위암의 다양한 내시경 소견과 임상적 특성’을 주제로 한 연구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심 동창은 이번 수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이화의료원 새 병원 건축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했다.



이희준 동창

이희준(약학 92) 동창

극작가이자 서강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희준 동창은 2015년 12월 18일(금)부터 2016년 2월 28일(일)까지 뮤지컬 <오케피>를 무대에 올렸다. 또한 1월 7일(목)부터 3월 31일(목)까지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편>을 대학로예술마당에서 공연하였다.



문경원 동창

문경원(서양 93) 동창

모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인 문경원 동창이 2015년 11월 28일(토)부터 2016년 2월 14일(일)까지 일본 아마구치현 아마구치 정보예술센터(YCAM)에서 개인전 ‘프라미스 파크’를 열었다.



송종선 동창

송종선(수학 93) 동창

송종선 동창이 에이컴메이트 중국 상해지사 부사장에서 대표이사로 승진하였다. 송 동창은 중국 주요 B2C 쇼핑몰 브랜드 운영대행 등 중국 역직구 사업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소정(화학 94) 동창

세계적인 학술지 《Nanoscale》의 자문이사로 선임됐다.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박소정 동창은 2009년에는 미국과학재단의 신진과학자연구상을 수상했고, 미국화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의 부 편집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소정 동창

정지은(국악 94) 동창

영국에서 가야금 연주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정지은 동창이 주영한국문화원과 영국학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야금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정 동창은 재 영 한인 예술인 협회(Korean Artists Association in UK) 회장을 역임했으며, KAYA(가야금과 기타)라는 듀오를 결성하여 활발한 연주 활동으로 유럽 여러 국가에 가야금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정지은 동창

조진희(과교 96) 동창

미국 육군조사연구소 박사 조진희 동창이 미국 백악관과 연방정부가 선정하는 ‘축망받는 젊은 과학기술인 105인’에 선정됐다. ‘젊은 과학기술인상’은 미국 과학발전에 공헌하게 될 젊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선정해 최대 5년까지 연구기금을 지원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진희 동창

박혜수(조소 97) 동창

개인전 ‘자금 여기는 어디에도 없다’를 2월 23일(화)

부터 4월 9일(토)까지 서울 청담동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선보였다. 박혜수 동창은 2013년 송은미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혜수 동창

이지은(조소 97)

2월 24일(수)부터 3월 21일(월)까지 갤러리 밍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조수진(의학 97) 동창

조수진 동창이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6년판에 등재되었다. 미숙아, 신생아 질환 분야 전문가인 조수진 동창은 이번 2016년 판에서 신생아 전문의로 이름을 올렸다.



조수진 동창

이예승(동양 98) 동창

2월 12일(금)부터 3월 3일(목)까지 서울 통의동 아트사이드 갤러리에서 ‘동중동·정중동’ 이란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이예승 동창

정소연(국문 99)·이승윤(사복 03) 동창

모교에서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소연 동창과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승윤 동창이



정소연 동창



이승윤 동창

2015년 11월 10일(화) ‘2014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 사업 우수성과’ 유공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동창은 조선시대 시문학사를 새롭게 조망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으며, 이승윤 동창

은 정부의 주요 정책이 여성노동시장에서 갖는 함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점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이재순(조소 02) 동창

2015년 12월 2일(수)부터 12월 17일(목)까지 아트 스페이스 루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노국희(물리 03) 동창

노국희 동창이 201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었다. 당선작은 ‘위험 수목’이다.



노국희 동창

조재영 (조소 03) 동창

1월 8일(금)부터 2월 14일(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최윤경(문정 03) 동창

2015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서 ‘도서관 자료 관리 및 국가 문헌정보체계 구축’ 직무에 최종 합격했다. 최 동창은 2016년 4월부터 5급 사서사무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최윤경 동창

이혜진(건축 06, 이하 건축 생략)·류지연(07)·전원(08)·류종미(09)·박재희(09)·윤하원(09)·이

윤희(09)·이혜서(10)·임윤지(10)·최선용(10)·김은혜(11)·박한솔(12)·최은영(12) 동창

도교 건축학 전공 동창들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15년 건축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총 15명, 2명은 미확인). 이 중 박한솔 동창은 최연소(만 27세)로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내 건축설계 분야의 최상위 자격시험으로 건축사 사무소나 등록 원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은 후 응시할 수 있다.



박한솔 동창

이해승(생명 09) 동창

2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한국유전체학회가 주최한 ‘제12회 한국유전체학회 동계 심포지엄 2016’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권예지(생명 11) 동창

2015년 10월 21일(수)에서 23일(금)까지 개최된 ‘2015 한국생물정보시스템생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임정수 동창

임정수(통계 16) 동창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015년 제38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임정수 동창이 보험계리사 부문에 최종 합격했다.

박선영(특교 12)·박정연(특교 14)·박수영(특교 16)·이샛별(특교 16) 동창

‘2016학년도 특수교육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박선영 동창과 이샛별 동창이 각각 유아특수교육 부문 서울 지역과 인천 지역의 수석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박수영 동창은 제주 지역 초등특수 교육 임용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였으며, 박정연 동창은 중등특수교육 부문 서울 지역 수석을 차지했다.

추억 속의 하이델베르크 신도자(국문 60)

신도자 지음 / 단계

- 신도자 동창이 에세이집을 출간하였다. 오랜 해외생활에서의 체험이 녹아들어 있으며, 한 집안의 가풍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기도 하다. 요직에 있으면서도 청렴결백을 생활신조로 삼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한 아버지에 대한 회상도 인상적이다.



최고의 예제르가 되다 이희숙(약학 62)

이희숙 지음 / 쿰란출판사

- 후배 목사 사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 목회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기록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남편 목사의 전반적인 목회 사역을 내조했던 경험과 관련 내용을 강의한 사모학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소중한 기억들 김영교(영문 63)

김영교 지음 / 서울문학출판부

- 시인 김영교 동창이 수필을 엮어 책으로 펴냈다. '오래된 얼굴 하나' '팡세 노트에서' '가시고기 나무' '짧음의 미' 등 수필 작품을 수록하였다.



빗방울 이정자(기독 66)

이정자 번역 / 국학자료원

- 이정자 동창이 고시조부터 현대시조를 영어로 번역한 시조집을 출간하였다.



우리들의 목소리 2: 아시아 페미니즘과 여성 운동의 현장

장필화(영문 74), 이명선(대학원 89)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기획 / 장필화, 이명선 역음 / 이대 출판부

- 이 책은 『우리들의 목소리 1: 아시아 페미니즘

과 여성 운동의 현장』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이화 글로벌암파워먼트 프로그램(EGEP) 5기부터 7기까지 참가했던 아시아 여성 운동 활동가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몇 편을 모아 우리말로 담았다.



은퇴하고 사는 법 이희순(사학 75)

이희순 지음 / 민속원

- 모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KIST 시스템 공학부(현 ETRI) 연구원을 거쳐 IT벤처기업을 창업, 15년간 경영한 이희순 동창은 충청남도 금산군의 산촌에서 삶을 즐기고 있다. 이 동창은 이 책에서 산촌 생활의 세세한 일상을 통해 은퇴 후 자연으로 회귀한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엄마의 편지 조연경(법학 75)

- 조연경 동창이 장편소설 『엄마의 편지』를 출간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딸의 행복을 위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준다.



디지털미디어와 예술 박숙영(조소 80)

박숙영 지음 / 이대 출판부

- 이 책은 디지털 환경이 가져온 예술의 변화에 주목하고 디지털 환경과 예술의 관계성을 통해 현대 예술의 한 측면을 이해하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예술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 박숙영 동창은 모교 조형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황북기 박사의 노빈손 과학실험

황북기(화학 83)
황북기 지음 / 뜨인돌

- 한양대학교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의 부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황북기 동창이 청소년대상 STEAM 교육 과학실험책을 출간하였다. 황동창은 이동과학교실, 과학 캠프, 과학 강연극 등을 기획·운영하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이 책은 과학실험 전도사로 불리는 황동창이 현장교육을 이끌며 쌓아온 노하우를 집약해 집필한 도서로, 과학 교과와 연계된 핵심 과학실험이 실려 있다.



손지애, CNN, 서울

손지애(정외 85)
손지애 지음 / 김영사

- 모교 국제대학원 교수 손지애 동창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다. 오랜 외신기자 생활과 청와대 해외홍보비서관을 거쳐 2011년 아리랑TV 최초의 여성 사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젠더 중립성의 신화

원숙연(행정 86)
원숙연 지음 / 이대 출판부

- 모교 행정학 교수로 재직 중인 원숙연 동창이 주류 연구와는 다른 시선을 통해 여성 공무원의 현실을 조망한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여성 공무원의 자기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여성 공무원과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남성 공무원, 여성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정부 관계자, 그리고 공직 사회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심층적이고 균형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내 안에 개 있다

신아연(철학 87)
신아연 지음 / 책과 나무

- 신아연 동창이 최근 중앙일보와 자유칼럼그룹, 호주 한국일보에 연재했던 63편의 글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호주에서 21년간 이민 생활을 한 신동창은 다



시금 만난 한국 사회를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며, 평범한 일상을 명징하고 예리한 문체로 맛깔나게 버무려내었다.

지금은 영시를 읽어야 할 때

노진희(영문 00)
노진희 지음 / 알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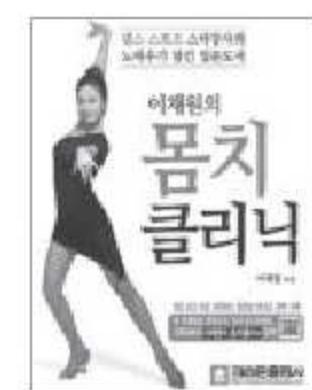
- 『서른다섯까지는 연습이다』의 저자 노진희 동창의 두 번째 에세이. 영문학을 전공하고, 카피라이터로 활동 중인 노동창에게 영시(英詩)는 오랜 친구와도 같다. 이 책은 영시에서 길을 찾고, 위로를 받은 노동창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들고 영시를 읽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쓴 책이다. 요즘처럼 힘든 시절, 때로는 장난꾸러기 수다쟁이처럼 재미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철학자나 예언자처럼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영미 시인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책이다.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이채원(무용 07)
이채원 지음 / 크라운출판사

- 〈댄싱 위드 더 스타〉에서 활약한 이채원 동창이 댄스 스포츠 입문자를 위해 자신의 노하우가 담긴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춤을 배우고 싶지만 바빠서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배울 수 있는 홈트레이닝 댄스북이다. 차차차, 룸바, 자이브, 왈츠, 탱고를 사진과 설명, QR코드 영상으로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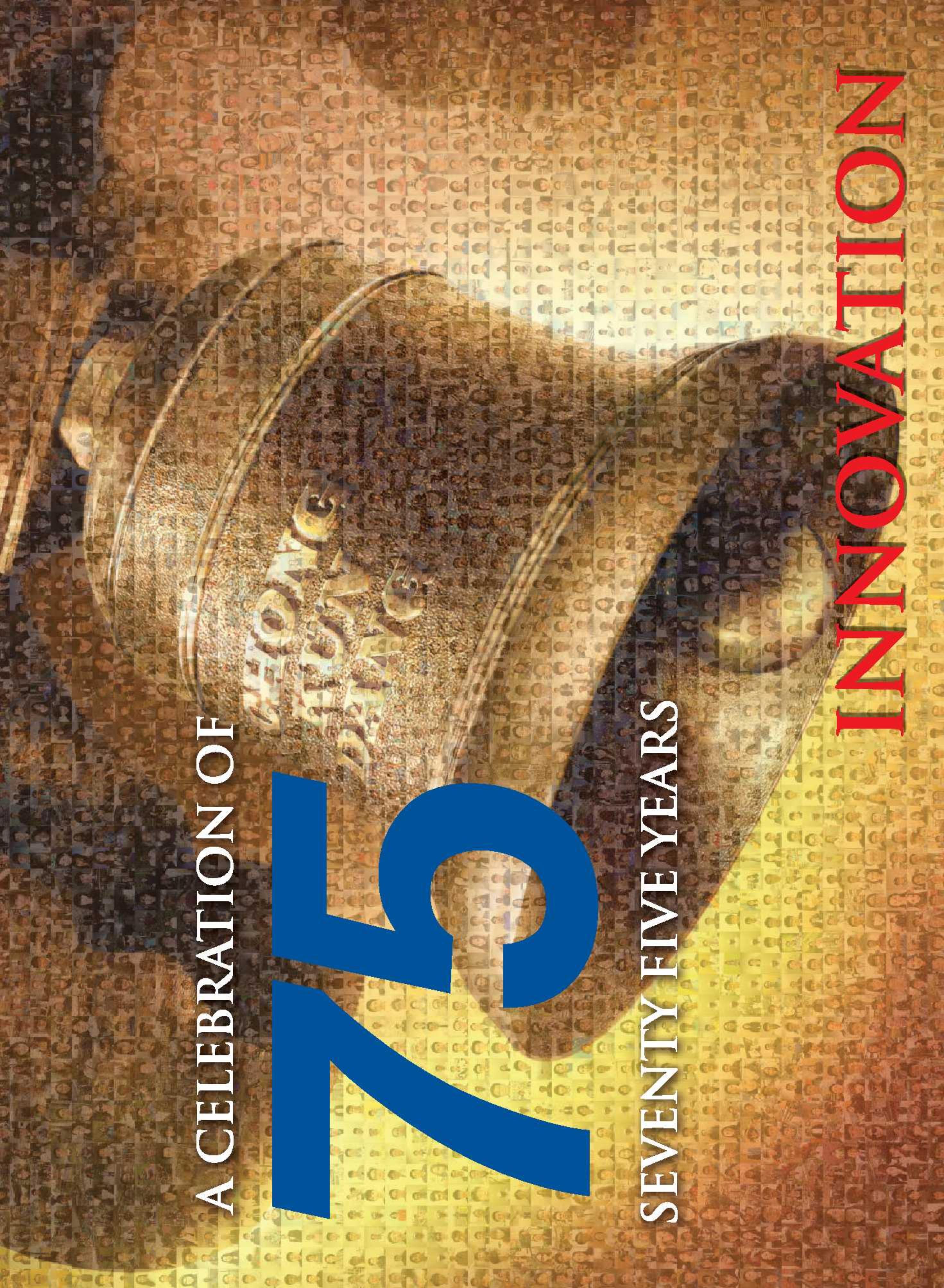


덧니

조혜린(국제사무 16)
조혜린 지음 / 글빛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와 이대학 보사가 이화여자대학교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동 주관하는 '이화글빛문학상' 제10회 당선작이 책으로 출간되었다. 조혜린 동창은 서른 살 비정규직 송연우를 통해 현실 티협적 연애와 결혼, 이분법적 분류와 획일성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 가정 폭력과 성정체성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의식을 인물 간의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버무려 공감을 얻을 수 있게 그려내었다.





INNOVATION

SEVENTY FIVE YEARS

A CELEBRATION OF

특허가 경쟁력입니다!!!

Lipitor® Patent Challenge



SBS News 2010. 3. 25 20:00

Dr. So Young Ahn
Patent Attorney Representing Generic Companies

안녕하세요, 안소영 변리사입니다.

1. 저희 사무소는 제약/바이오/화학 분야에 특화된 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2006. 2. 기소한 이래로 제약/바이오/화학 사건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 분야의 발명은 기술 내용이 어렵고 최첨단의 기술이 많아 오직 전공자만이 발명을 이해하고 특허청이나 특허법원에 발명의 내용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대표 변리사이자 약학 박사로 연구원 및 특허청 실사관 경력을 겸비한 안소영 변리사를 필두로 하여 구성원 모두가 이 분야의 전공자로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저희 사무소는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승소율을 자랑합니다.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은 전공자식과 법리 및 육체적 소송경험으로 출처로 무장된 사무소만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바라크루드, 글리벡, 도세타惺, 자나닙, 에비스타, 리피토, 폴리акс, 노바스코, 엘립시안, EPO, G-CSF 등과 관련된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에서 매번 승소를 거듭으로써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이정표적인 특허 판례의 유통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특허소송들을 통해 터득한 소송 노하우들은 다음 사건의 승소를 위한 또 다른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3. 저희 사무소는 IP Management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R&D 기획 단계부터 특허권 확보 및 권리행사 단계까지 특허맵을 통한 기술동향조사, 회피설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침해 여부 사건 검토, 경쟁사 제품과 특허 모니터링 등 매 단계별로 특허전략을 제공합니다. 특히, 개발된 의약품의 특허와 관련하여서는 신약처에 특허 등록, 해가신청 통지, 등재특허 판례, 각종 실험/소송 등 의약을 허가·특허 연계 계도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의 연구성과가 특허에 의해 보호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Dr. So Young Ahn / Patent Attorney

업무분야

1.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2.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관련 업무
3. 심판 및 소송
4. 감정서 작성 : 등록가능성, 무효가능성, 비침해
5. 자문업무 : 회피 설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직무발명, 라이선싱

안소영 대표 변리사 약력

현재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대한변리사협회 회원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위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상경력
신약개발유공포장
(2012. 2. 29, 신약개발연구조합)
무역구제유공포장
(2007. 10. 12, 산업자원부장관)
국제협력유공포장
(1998. 10, 특허청)

주요경력
대한변리사회 학회생명전문변리사 분회장
특허청 자체평가위원
외교통상부 FTA 전문가 자문위원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과)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
특허청 특허심사관 (박사복제 1기, 약품화학과, 유전공학과),
특허심판원 소송수행자
서울의대 암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원

B2

2009년 6월 06일 목요일 12:00

제작일자 | 조회 수 | 관리자

여신프로페셔널 국제 특허소송 전문가 안소영 변리사

뉴스와 사람



특허소송 승승장구... 국내제약회사 '구원투수'

안소영(40) 변리사는 국내 제약업체에서 구판부구조를 풀었다. 국내 제약 회사와 디렉터 제약회사가 맞붙은 수십 건의 특허 소송에서 국내 제약회사에 승리를 안겨다 줄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최근도 안 변리사는 11회째 국내 제약회사 대제작으로 디렉터 기업과 수현연예에 규모대 특허소송을 맡아 전쟁 중이다.

특허소송이 막어질 때마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안 변리사를 찾기 점점 계기는 1998년 시작된 CDMA 개발 세종학

대국적 제약회사 삼대
특허소송 수십 건 승리

제약서비스연구소의 500억 원대 소송이었다. 안 변리사는 대법원에 진행 폐소를 결정하며 고기환송전 사건을 2004년도 결심 재판부에 넘겼다.

대법원에서 최기환증권 재판은 2011

에서 다시 열릴지를 알 수 있다. 물론 대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대로 3심에서도 결정된다. 하지만 안 변리사는 2011년에 서 승소하고 마침내 대법원에 시즌 2005년에 승소하는 '4연'을 연출했다.

국내 제약회사 연구소가 취득한 특

허소송 전화가 차후 결판과 불후의 전언을 자랑한다. 안 변리사는 전화가 차후 결판과 불후의 전언을 자랑한다.

제작자에게 이미 알아온 상태에서 안 변

리리는 양자 '제약 특허소송의 스타判决했습니다.'

안 변리사는 종양부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남편과 두 딸을 두고 있다.

그는 "한국 변호사가 절대 할 수 있는 것

것은 대소사를 남편이 저 대신 처리한

그대는 고용 변화나 제한을 대비

제작자에게 충분히 대안 대처법 모니터

제작자에게 충분히 대안 대처법 모니터</

최고의 성흔율 S노블



“Looking for spouse?”

참 한결같은 S노블

아무나 가입을 허락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1%의 만남을 위한 100%의 약속, S노블

성혼시까지 무기한·무제한 결혼정보 서비스로 성혼을 책임집니다.

SINCE1999

www.snoble.com

이화여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번지 패밀리빌딩 2F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클럽
 S Noble
SINCE 1999